



▲ "앞으로의 대학생활이 두근거려요"
이번달 23일(목) 입학식에서 신입생선서를 하고 있는 박기훈(영어·영통12)군과 윤서영(상경·국통12)양.

등록금 2.2% 인하

◆ 명목등록금 4% 인하돼

우리학교 2012학년도 등록금이 2.2% 인하됐다. 또한 지난해보다 교내장학금을 1.8% 더 확충하여 약 24억 원이 추가 지원된다.

지난달 25일(수) 열린 제4차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에서 2012학년도 등록금 2.2% 인하 방안이 학교 측과 학생대표 측 협의로 최종 결정됐다. 이날 열린 등심위 초반에 학생대표 측은 등록금 4% 인하 방안을 요구했다. 등록금 인하율에 비례하여 국가 지원이 확대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학교 측은 국가 지원과 관계없이 재정 규모 자체가 축소됨을 이유로 기각했다. 학교 측은 대신 2.2% 인하와 함께 교내장학금 24억 원을 확충하는 안을 제안했다. 명목등록금이 약 4% 인하되는 셈이다. 이에 학생대표 측이 공감하여 등록금 2.2% 인하안이 결의됐다.

학교 측은 확충된 교내등록금이 △저소득

층 대상 장학금 △7+1 파견학생제도 △기존 교내장학금 액수 증가 등에 쓰여 등록금 인하로 학생 지원이 축소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학태 기획조정처장은 "신규사업 예산은 편성할 수 없었으나 등록금을 줄이기 위해 경상비 지출을 줄이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현성(통번역·아랍어 07) 글로벌캠퍼스 학생회장은 "아쉬운 결과지만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우리학교 같은 경우 더 인하를 할 경우 수업의 질에 악영향을 주는 등 장기적인 발전에 저해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현우(사회·자전 11)군은 "비록 인하율이 작을지는 몰라도 인상이 아니면 동결만 되던 등록금이 인하됐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갑자기 등록금을 대폭 인하할 경우 생기는 문제를 감안해서라도 조금씩 인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 등심위, 구성원에 대한 규정 미비 아쉬워

등록금은 인하됐으나 등심위 구성원과 관련된 규정은 여전히 숙제로 남았다.

현행법상 학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정할 때 등심위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가에서 등심위 관련 법안을 마련했으나 이것을 각 학교에 적용할 때 학교의 실정에 맞도록 세부사항을 학내에서 다시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등심위 구성원도 그 세부사항 중 하나이다. 법률상 등심위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해야 한다.

우리학교의 이번 등심위는 △서울배움터 부총장 △기획조정처장 △양 배움터 학생처장 △서울배움터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서울배움터 비대위부회장 △글로벌캠퍼스 총학생회장 △글로벌캠퍼스 부총학생회장으로 이뤄졌다. 학교와 학생 측의 협의에 따라 서류상으로 외부전문가를 기재했지만 실제 회의에서는 제외된 채 진행됐다. 하지만 학생대표 측에서는 회계내역 같은 전문

성 있는 자료 분석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학교와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주옥(법·법 08) 서울배움터 비대위장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등심위 구성원에 관한 세부 규정이 정해지지 않아 등록금 심의와 함께 외부전문가 관련 구성원 문제도 같이 논의될 수밖에 없었다"며 "서울 측 총학생회가 세워지면 반드시 이런 세부규정을 정해 혼선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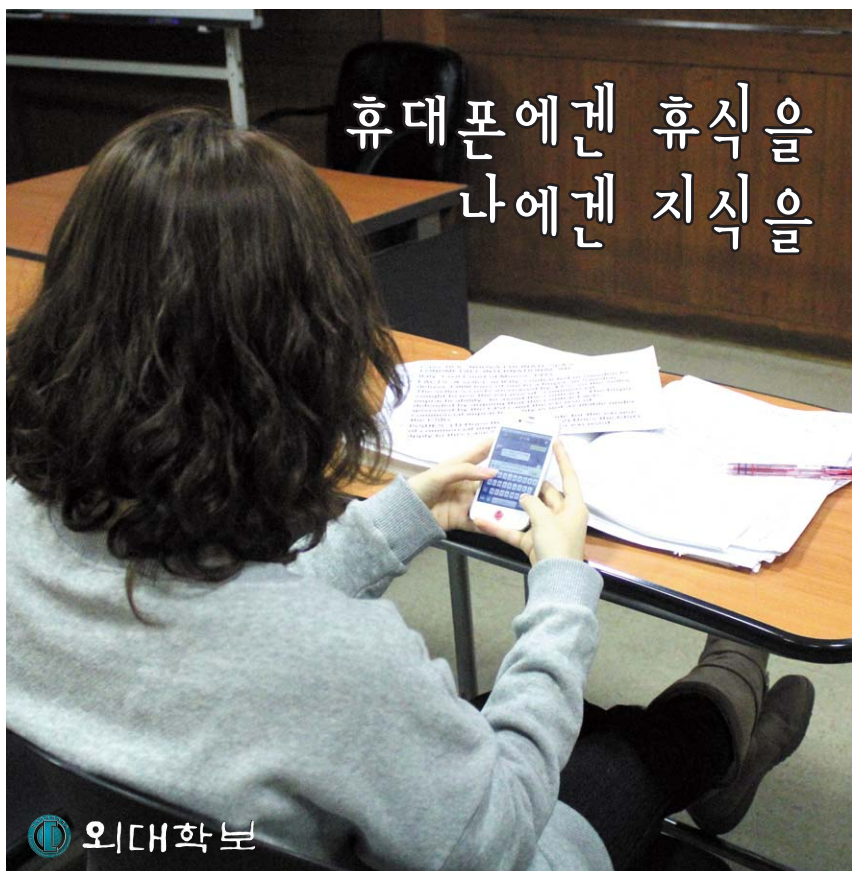
외부전문가의 부재에 대해 전학선 전 서울배움터 학생처장은 "학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외부전문가를 구성원으로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며 "만약 학교의 전반적인 상황을 모르는 외부인을 구성원으로 하면 등심위에서 의견조율의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나 앞으로 등심위 구성원에 대한 정확하고 세부적인 규정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문나윤·이은수 기자 84euneun@hufs.ac.kr



▲ "사회를 향한 첫걸음에 가슴 벅차오"
이번달 24일(금) 열린 학위 수여식에서 정애리(글경·경영 06)양이 학사모를 던지고 있다.

지면안내 2 노천극장 철거 계획 유보돼 4 아직도 계획 없는 강의 계획서 6 참공약 실천운동 매니페스토 7 학교 앞 유서 깊은 맛집탐방



▲이번 달 22일(수) 오후 4시경 인천세브란스병원 의료진의 자기공명영상(MRI)진단 결과가 전국 방방곡곡에 생중계로 방영됐다. 사진의 주인공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진씨. 질문공세는 의료진에게 실재없이 쏟아졌고, 카메라 플래시는 한 장면이라도 놓칠세라 여기저기서 터져댔다. 개인 의료 기록과 검사가 전 국민에게 노출된 참으로 기막힌 광경이 아닐 수 없었다. 화면 아래에는 강용석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한다는 속보가 슬그머니 떠올랐다.

▲강 의원은 이달 중순 자신의 블로그에 '박주진씨가 병무청에 제출한 것'이라며 MRI를 게재했다. 그는 사진과 함께 "박씨가 병무청에 제출해 4급 판정을 받은 MRI는 본인 것이 아니므로 재검사를 받아 의혹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병무청에 보관 중인 주진씨의 사진

아니면 말고

과 세브란스 병원에서 재활영양 것이 일지함으로써 완전히 해소됐다.

▲의혹을 제기한 것 자체가 문제시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올바른 병역복무의식 확립을 위해 비리가 있다면 밝혀 심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군대는 돈 없고 뺨 없는 바보들만 가는 곳'이라는 인식을 깨야 국민정서도 안정되고 군인들도 자랑스럽게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2008년 총선 당선자를 기준으로 국회의원 본인 47명과 자녀 22명이 병역을 면제받았다. 면제사유도 △국적 상실 △고령 △장기대기 등 석연찮은 경우가 많다. 이 같은 정치권의 행보는 국민들의 불신을 키워왔고, 이번 사태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한몫했다.

▲그래도 무책임한 문제제기는 곤란하다. 강 의원이 어떻게 개인의 의료 정보와 기록을 얻었는지, 과정에서 불법행

위는 없었는지 미지수일 뿐만 아니라 그가 가한 정치적 피해도 만만찮다. 박 시장은 "강 의원이 아들의 여자친구 전화번호까지 알아내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는 통에 아들은 밖에 함부로 다니지도 못할 정도로 공포에 질려 있었다"고 토로했다.

▲올해 4월 11일(수)에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들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유세에 돌입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속적인 감시와 단속활동을 벌이고, 사전 선거법안내와 예방활동을 강화할 것임을 밝혔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후보자들이 '아니면 말고'식의 비방을 지양하는 것이다. 후보자들이 정치적 이익에 흔들리지 않고 도덕적 기반을 다져나갈 때, 신뢰받는 진정한 국민의 대표자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국·부장 고정칼럼

서상아 부장

학내 브리핑

빵차 어플 아이폰으로도 사용하세요

일명 '빵차'라는 교내 셔틀버스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이 이번 학기부터 앱스토어(App Store)에서도 다운로드가 가능해졌다. 지난해 우리학교 학생들이 만든 빵차 어플은 안드로이드(Android)용으로 출시돼 빵차가 운영되는 △횡수 △시간 △위치정보 등을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잉글리쉬존(English Zone) 영어 토론단 모집

다음달 5일(월)부터 8일(목)까지 글로벌캠퍼스 외국어교육센터에서 영어 토론단을 모집한다. 영어 토론단 인원은 각각 8명씩 5개 반으로 총 40명이다. 지원방식은 잉글리쉬존(English Zone) 수업 중 개인이 1학기 동안 참석 가능한 시간을 골라 방문해 담당 지도교수와 인터뷰한 후 반배정을 받게 된다.

생협 복지장학금 신청하세요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에서는 다음달 복지장학생을 모집한다. 총 20명을 선발해 한 학기에 1인당 140만원 상당을 복지장학금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복지장학생 접수 기간은 다음 달 2일(금)부터 8일(목) 17시까지다. 장학생 지원 자격은 우리학교 학우면서 직전학기 성적이 2.0 이상이면 가능하다. 선발확정 공고는 다음달 15일(목) 생협사무국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시간표 수정하세요

서울배움터 1, 4학년 학생들은 이번달 28일(화)에 2, 3학년 학생들은 29일(수)에 수강신청을 변경할 수 있다. 학년 별 변경 기간 이후인 다음달 2일(금)부터 6일(화)까지는 전체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수강신청 변경이 이뤄진다. 글로벌캠퍼스 학생들은 이번 달 28일(화)부터 다음 달 6일(화)까지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수강신청 변경이 이뤄진다. 수강신청 변경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학교 홈페이지의 HOT link를 통해서 할 수 있다. 한편 4월 2일(월)부터 4월 6일(금)까지는 수강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노천극장 철거, 학교와 학생측 재논의 필요

학생의견 수렴 절차 필요해

노천극장을 철거하고 잔디공원을 조성하려는 학교 측의 계획이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의 반대로 유보됐다. 지난달 26일(목) 노천극장 철거 관련 입찰공고가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됐다. 이와 관련해 건설기획팀은 학교가 추진하는 '비전 2016'에 따르면 잔디공원 조성이 노천극장 철거 계획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노천극장 지하에 위치한 동아리방이 다음달 미네르바 콤플렉스로 이전하면 노천

극장 지하는 안전문제로 폐쇄되기 때문에 열악한 노천극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잔디공원 조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건설기획팀 김재준 팀장은 "노천극장 부지에 건설될 제2도서관 신축은 사이버외국어대학교 건물 건축 이후로 예정돼있는데 그때까지 낙후된 노천극장을 방치할 수 없다"며 "노천극장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이 드는 잔디공원을 구상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비대위는 지

난 해 합의된 4대 요구안에 따라 노천극장 철거와 제2도서관 건축은 그 시기를 같이 하기로 결정됐고, 이 또한 학생들과의 논의 후에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주옥(법·법 08) 비대위원장은 "노천극장 철거를 위해 학내 여론을 수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노천극장 철거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논의도 없이 일을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한편 그동안 노천극장 존폐문제는 지속적인 찬반논란에 시달렸다.

철거에 찬성하는 측은 노천극장의 낙후된 시설과 노천극장이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함을 이유로 든다. 반면 공론의 장으로써의 역할이나 노천극장의 역사에 담긴 상징성을 이유로 철거를 반대하는 의견도 많다. 노천극장 철거 후 학생들이 모임 장소를 대체할 곳이 없다는 입장에 대해 김재준 팀장은 "잔디공원이 노천극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은수 기자 84euneun@hufs.ac.kr

글로벌캠퍼스 실용영어 학사제도 개편된다

이번해 1학기부터 글로벌캠퍼스 실용영어 학사제도가 새롭게 개편된다. 지난학기 실행됐던 잉글리쉬존(English Zone) 의무수업이 5번에서 3번으로 줄어들고 학생들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40명중 5명은 영어토론수업을 진행한다. 이에 따라 외국어교육센터에서는 영어토론수업에 필요한 영어토론단을 모집한다.

실용영어 수업방식도 새롭게 바뀐다. 지난 학기까지 모두 원어민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했던 방식이 이번 학기부터는 원어민 선생님 2명, 한국인 선생님 1명으로 진행된다. 또한 신입생들은 수능시험 영어성적을 기준으로 IFLEP 등급을 받은 후 이번 학기 실용영어 반배정을 받게 된다. 이후 2학기 수업은 4월 말 모의 FLEX시험을 통해 반을 재배정한다.

한편 새로운 제도도 도입된다. 글로벌캠퍼스 외국어교육센터에서는 영어 외국어인증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외국어가산점제도를 도입한다. 외국어가산점제이란 학생들이 재학 중 이수한 다양한 정규·비정규 영어 프로그램에 점수를 부여해 1000점을 획득한 학생

구분	가산점 부여 원칙
정규과정	1학점=100점
비정규과정	
English Zone	1회 참석=4점
English Clinic	

▲ 가산점 부여 원칙

의 경우 영어 외국어인증을 대체할 수 있도록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은 1학점 당 100점이며 정규과정으로는 HUF Survival English (1)/(2)가 있고 비정규과정으로는 방과 후 영어 프로그램, Intensive Course 등이 있다. 또한 외국어교육센터는 가계곤란 학생들을 위해 무료로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제도를 통해 가계곤란학생들의 영어실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모든 과정 수료 시 학점은 물론 외국어가산점도 인정해 줌으로써 가계곤란학생들이 졸업을 위해 필요한 영어 외국어인증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와준다.

문요섭 기자 85macho@hufs.ac.kr



▲ '2012 외대사랑 강의실' 동판 제막의 순간!

"오랜 기간 재직해 온 외대는 영원한 가족"

네 명의 정년퇴임 교수 위한 동판제막식 열려

이번 달 정년퇴임을 맞아 네 명의 교수 △김명옥(영문학과) △김영애(태국어과) △양승윤(마인어과) △이선우(영어학과)를 위해 교내에서 뜻 깊은 행사를 열었다. 학교발전을 위해 써달라며 네 교수가 도합 1억2천여 만원을 기부했고, 이에 학교에서는 예우의 일환으로 이 달 24일(금) 서울배움터 인문과학관(이하 인문관) 207호에서 동판제막식을 거행했다.

앞으로는 인문관 207호를 '2012 외대사랑 강의실'이란 이름으로 부르며 기부자인 네 교수의 이름이 새겨진 동판을 만날 수 있다. 강의실 동판 제막행사는 1, 2부로 나뉘어 인문관 강의실 207호의 입구

와 내부에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네 기부자와 박철 총장, 교내 교수 및 기타 내·외빈이 참석했다.

박철 총장은 축사를 통해 "정년퇴임을 앞두고 고액의 발전기금을 기탁하시는 등 학교와 후학들을 위해 보여주시는 끊임없는 헌신과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답사로 네 교수는 "오랜 기간 재직해 온 학교와 학생들은 내 손자, 내 자식같이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외대의 영원한 가족이라는 자부심으로 소중한 인연을 영원히 간직하겠다"는 소회를 밝혔다.

안지혜 기자 84lady@hufs.ac.kr

새로운 외대학보 이제 당신의 손으로 만드세요!

외대학보사 86기 수습기자 모집

모집기간 : 2012년 2월 27일(월)~3월 23일(금)
모집대상 : 양 배움터 II, 12학번 학생
지원서 마감일 : 3월 23일(금)
필기시험 및 면접일 : 3월 24일(토)
합격자 발표일 : 3월 25일(일)

지원서 수령 및 제출

- ▶ 서울배움터 : 학생회관 401호 02-2173-2504
- ▶ 글로벌캠퍼스 : 학생회관 212호 031-330-4112

문의사항 연락처 : 010-2010-7620 편집장 오유진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기공식 참석자들이 식을 기념하고 있다.

사이버외대 첫 삽 뜨다

지하 2층, 지상 8층 배움의 전당 기공식 열려

이번 달 22일(수)부터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이하 사이버외대) 신축공사가 시작됐다. 사이버외대는 서울배움터 정문 옆 소운동장에 지하 2층, 지상8층 건물로 세워진다.

사이버외대는 강의실 36실, 연구실 41실 등 교육 시설 뿐 아니라 △강당 △소강당 △미디어 갤러리 △편의시설 △라운지 등 부대시설이 두루 갖춰져 교수진과 학생들의 편의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신축 공사는 이번 해 2월 말부터 이듬해 7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달 22일(수)에 열린 기공식에서는 △박철 총장 △임우영 사이버외대 학장 등 내빈뿐 아니라 직접 공사를 담당하는 △쌍용건설 △경우전기 △아시아나IDT 관계자 등 외빈들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특히 신축공사 경과보고 및 공사개요 보고에 이어 직접 흙을 떠내는 시삽 행사가 있어 눈길을 끌었다. 박철 총장은 “이제 사이버외대는 새로운 공사를 위한 준비를 모두 마치고 한발 더 나아가려한다”며 “건물의 설계와 건설을 맡은 모든 관계자 분들이 안전과 사고예방에 유념하며 무사히 시공을 마칠 수 있길 바란다”고 소망을 드러냈다.

이에 임우영 사이버외대 학장은 “이번 신축공사는 여유 있는 공간 확보로 다각화된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만큼 학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오프라인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새 건물이 정문 옆에 위치해 대내외적으로 좋은 이미지 형성에 도움이 되고 지역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 기대된다”고 전했다.

강유나 기자 84yoona@hufs.ac.kr

사이버외대, 각 층별 구성은 어떻게 될까

- 지하2층~지하층: 기계실 및 전기실을 갖춘 주차장 시설
- 지상1층: 400석 규모 대강당, 편의시설, 라운지
- 지상2층: 미디어 갤러리, 화상강의실 등
- 지상3층: 120석 규모 소강당, 중강의실 1실, 소강의실 10실
- 지상4층: 중강의실 1실, 소강의실 13실
- 지상5층: 중강의실 1실, 소강의실 10실, 연구실 13실
- 지상6층~8층: 행정실(학과사무실, 학장실, 처장실, 회의실, 컨텐츠실), 연구실 28실 등



제1회 학과 홍보 동영상 공모전 수상자 발표

학과에 대한 학생들의 애정 엿보여

이번 달 10일(금) 제 1회 학과 홍보 동영상 공모전 수상자가 발표됐다. 공모전은 지난 해 11월 말부터 올해 1월 중순까지 우리학교 학생들의 학교 및 학과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진행됐으며 5팀이 최종 수상자로 선정됐다. 심사위원들이 20개의 과들의 동영상을 심사한 결과 이번 시상에서는 최고수준에 해당하는 금상은 시상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동상과 장려상 수상자를 늘리기로 결정했다.

이번 시상에는 △한국어교육과 △디지털정보공학과와 아프리카학부 △언론정보학부와 영어통번역학부가 각각 △은상 △동상 △장려상의 영예를 얻었다. 또한 수상자들에게는 순위에 따라 △150만원 △100만원 △50만원의 상금이 차등적으로 수여됐다. 이번 공모전에서 은상을 수상한 한국어교육과의 김영운(사범·한교 05)군은 “많은 팀들과 같이 고생해서 학



▲ 한국어교육과 홍보 동영상

과 홍보 동영상을 열심히 만든 만큼 좋은 결과를 얻어 동영상 연출가로서 뿌듯하다”는 수상 소감을 전했다. 학과 홍보 동영상 대회를 주최한 정보통신팀 신왕철 팀장은 “처음 실시한 대회라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지만 학생들이 출품한 동영상의 주제가 다양해 인상 깊었다”며 “앞으로 있을 다음 공모전에서도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규원 기자 84kwhong@hufs.ac.kr

화재피해 복구나선 의리의 외인부대

“같은 동아리원으로서 할 일을 한 것 뿐”

이번 겨울방학 중 우리학교 중앙 락 동아리인 외인부대 구성원들이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같은 동아리 소속 학생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화재는 외인부대에 소속한 박건우(사회·정의 05)군의 부모님이 운영하던 상일동의 순대 국밥집에서 발생했다. 이로 인해 약 19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화재현장은 외인부대 구성원들의 도움으로 많이 나아진 상태이다. 또한 졸업생과 재학생이 모은 554만원의 성금을 박 군의 부모님께 전달했다. 이번 화재복구에 참여한 홍준하(법·법 07)군은 “외인부대 선배와 후배들 모두 갑작스런 어려움이 닥친 박건우 군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싶어 이번 복구에 참여하게 됐다”며 “같은 동아리원으로서 할 일을 한 것 뿐이다”라고 말했다.

외인부대의 진심어린 도움에 박건우 군은 “외인부대 동아리 1기 회장님을 비롯해 직접



▲외인부대 구성원들이 화재 후 진해들을 정리하고 있다.

찾아와 도움을 준 외인부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 어떤 힘든 일이 생겨도 서로 도와주고 위로하는 훈훈한 외인부대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홍규원 기자 84kwhong@hufs.ac.kr

도서관 이용자교육 온라인 콘텐츠 도입 안내

과정	교육명	교육내용	비고
기본	온라인 이용자 교육 (신입생용/재학생·대학원생·교직원용)	도서관의 다양한 서비스 및 학술정보 이용안내	신입생 필수
1단계	온라인 리포트 작성법	1) 리포트 작성법 2) 독서법 3) 자료 활용법 4) 정보리터러시 통합서비스	

※ 신입생은 기본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 도서를 대출할 수 있습니다.

- 대상자 : 모든 도서관 이용자(서울/글로벌캠퍼스)
- 시행일자 : 2012학년도 1학기부터
- 이용방법 : 도서관 홈페이지 우측 배너 선택
- 문의사항 : 도서관 1층 정기간행물실 (02-2173-2480)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도서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배움터 도서관장

〈심층보도〉 강의 계획서 기획, 그 후 1년을 돌아보다

강의 계획서 업로드 제지리 걸음

강의 계획서는 한 학기 수업의 내용과 방향을 제시해 학생에게는 수강에 대한 정보를 주고 교수에게는 한 학기 계획표가 된다. 하지만 수강신청 바로 직전까지도 업로드 되지 않은 강의 계획서 탓에 학생들은 작년도 계획서를 찾아보는 불편을 겪었다. 또한 조사한 결과 심지어 전공필수과목임에도 교수 이름조차 입력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지난해 본지는 강의 계획서 부재에 대한 기획 기사를 보도했다. 그 후 1년, 강의 계획서는 얼마나 달라졌을까?

편집자주

◆ 여전히 강의 계획서는 부재중

지난해 본지는 수강신청 일주일 전 강의 계획서가 얼마나 올라왔는지 조사했다. 그 당시 2830여개 전공과목 중 741개 강의(26.18%)와 교양과목 980여개 중 184개(18.77%)의 강의 계획서가 강의 시간표 사이트에 업로드 되지 않은 상태였다. 학생들이 수강신청 결정에 있어서 강의 계획서에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 적지 않은 수의 강의의 한 학기 가이드가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됐다.

이번해는 수강신청 하루 전(서울배움터 2월 8일, 글로벌캠퍼스 2월 5일)에 강의 계획서 수를 조사했다. 전공과목은 3266여개 과목 중 733개 강의(22.44%)의 강의 계획서가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 기초교양 △ 학습소프트플러오 △ 군사학을 제외한 교양 925과목은 141개 강의(15.24%)의 강의 계획서가 없었다. 수강신청 전날임을 감안했을 때 작년에 비해 크게 달라지지 않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같은 문제점의 반복은 이것뿐만이 아니다. 교수님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강신청을 한 갑나연(여문·중앙아시아어 11)양은 “해당 강의의 대한 정보는 없었지만 필수 수강과목이기에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며 의견을 표했다. 수강신청 전에 담당 교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는 지난해 전공 117개, 교양 14개에서 이번해는 전공 91개, 교양 5개로 그 수가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학생들에게 혼란을 줬다.

◆ 강의 계획서 100% 업로드는 미션 임파서블?

강의 계획서가 제때 올라오지 않는 원인은 강의 계획서 업로드에 대해 강제적으로 규제할 학교의 제도가 없고 학과의 자율성에만 맡기고 있는 실정기 때문이다. 교수 임명의 간소화로 정보 업로드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난해 기획 기사에서 다뤄진 대안에 관해 백종훈 서울배움터 교무행정팀 팀장은 “지난

해보다 한 달 먼저 교수진 결정이 이뤄져 각 학과에 알렸으며 인사권은 학과에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해의 경우 각 학과에서 교수진 배정이 늦어진 것이 문제가 됐다.

한편 조수봉 서울배움터 학사종합지원센터 팀장은 “외국으로 출타중인 교수진이나 외국인 교수가 개강에 맞춰 입국하는 경우 강의 계획서의 업로드 일정에 차질이 생긴다”는 것을 원인으로 꼽기도 했다. 현재 입국일은 규정만 돼 있을 뿐 학교가 이를 통제할 수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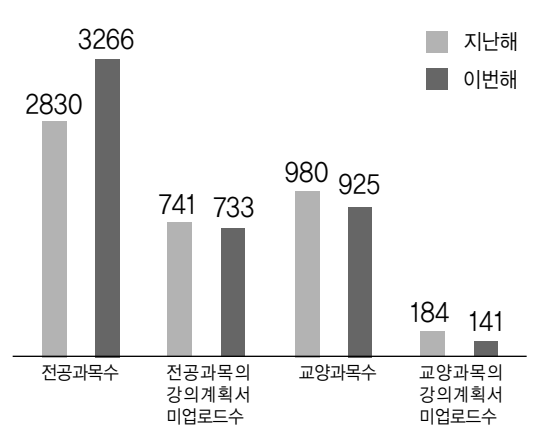
이밖에 학생들에게 강의 정보 전달의 어려움을 주는 이유로는 새로운 강의에 담당교수를 수강신청 전에 배정하지 않아 교수의 이름이 없는 경우도, 또한 전임교수에 비해 강사진의 강의 계획서 업로드에 대해 규제나 촉구를 하는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 학과 노력이 우선돼야

권혁재 글로벌캠퍼스 교무처장은 담당 교수 배정이 수강신청 후까지 미뤄지는 경우와 외국에 간 교수나 외국인 교수의 강의 계획서는 전적으로 학과의 자율에 맡겨 문제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빠른 담당교수 배정을 위한 협조문을 각 학과에 보내고 개강 한 달 전 입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영문 안내서를 각 교수님께 보내 협조를 부탁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권 처장은 전임교수의 경우 강의 계획서의 업로드 여부를 강의 평가 항목에 추가하는 제도를 제시했다. 하지

〈업로드된 강의 계획서 수 비교〉



만 그 무엇보다 학과의 노력이 중요하다. 이번에 모든 강의 계획서를 업로드한 정보통신공학과와 흥진표 학과장은 “강의 계획서의 100% 업로드는 사실상 교수의 기본적 의무”라며 “학생과 소통하기 위한 교수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실제로 정보통신공학과는 과 홈페이지에서도 모든 커리큘럼과 다양한 내용을 다시 정리해 업로드 하는 등 교과과정의 정보를 학생들에게 전달하려는 교수진의 내용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강의 계획서가 학생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교수와 학생이 소통해야 하는 장이 되는 것에 대해 남윤주(영어·영문 09)양은 “강의 계획서는 강의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를 보여줘 강의 계획서가 잘 되었을수록 실제 강의도 나와 잘 맞다”고 의견을 전하며 수강신청기간 전 모든 강의 계획서의 업로드를 바랐다.

문나윤 기자 84beginning@hufs.ac.kr

EUROPE - KOREA BUSINESS PLAN COMPETITION

Believe Innovation 2012

공모개요: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킬만한 획기적인 비즈니스 아이디어가 있으신가요?
총 2000만원의 상금은 물론 유럽기업 채용기회까지 제공되는 국제적인 경력개발의 첫 걸음!

공모분야:
① Mobile
② Web/IT
③ Energy & Infrastructure
④ Transportation
⑤ New Products & Services

대상: 1000만원
은상: 400만원
동상: 200만원
최고혁신상: 150만원
최고기술사업화상: 150만원
최고인기상: 100만원

공모대상:
공학 및 경영학 전공 학생을 포함한 공모분야와 관련된 모든 전공 학생

지원마감일: 3월 23일
온라인지원

지원서는 영문으로 작성

www.europekorea-bpc.co.kr

주최: EUCCK (The European Unio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참가기업: ABB, ASIANCE, BOSCH, EADS, SKYLAKE, SIEMENS, TRUMPF, Tetra Pak, VEOLIA WATER, vector, 한국경제

〈강의 시간표에 기재된 강의 계획서 업로드 상황〉

구분	학부	학과	강의번호	강의명	교과목명	학사	담당교수	강의시간	강의계획서	업로드
1	전공	1	F0105501	미적분학(1)	미적분학(1)	3	송현정	월 7:55 (510)	0	업로드
2	전공	1	F0105502	미적분학(1)	미적분학(1)	3	송현정	월 7:55 (510)	0	업로드
3	전공	1	F0105503	미적분학(1)	미적분학(1)	3	송현정	월 7:55 (510)	0	업로드
4	전공	1	U61601201	미적분학(1)	미적분학(1)	3	송현정	월 7:55 (510)	0	업로드
5	전공	1	U61601202	미적분학(1)	미적분학(1)	3	송현정	월 7:55 (510)	0	업로드
6	전공	1	F01119401	미적분학(1)	미적분학(1)	3	송현정	월 7:55 (510)	0	업로드
7	전공	1	F01119402	미적분학(1)	미적분학(1)	3	송현정	월 7:55 (510)	0	업로드
8	전공	2	F0195101	미적분학(1)	미적분학(1)	3	송현정	월 7:55 (510)	0	업로드
9	전공	2	F01257101	미적분학(1)	미적분학(1)	3	송현정	월 7:55 (510)	0	업로드
10	전공	2	F01201301	미적분학(1)	미적분학(1)	3	송현정	월 7:55 (510)	0	업로드
11	전공	3	F0184101	미적분학(1)	미적분학(1)	3	송현정	월 7:55 (510)	0	업로드
12	전공	3	F01307101	미적분학(1)	미적분학(1)	3	송현정	월 7:55 (510)	0	업로드
13	전공	3	F01311101	미적분학(1)	미적분학(1)	3	송현정	월 7:55 (510)	0	업로드
14	전공	3	F01919101	미적분학(1)	미적분학(1)	3	송현정	월 7:55 (510)	0	업로드

▲수강신청기간 전(2월 5일)

▲수강신청기간 중(2월 9일)

우리학교 양인모 재단이사 발전기금 1억 기탁해

양인모 전 외대총 동문회장(독일어 59)이 우리학교 발전에 쉼달라며 1억원을 기탁했다. 기금 전달식은 방학 중인 지난해 12월 19일(월)에 서울배움터 이덕선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날 양인모 이사는 “우리학교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박 철 총장을 비롯한 구성원 모두가 노력하는 이 때 한 줄 밀거름이 되고 싶다”며 “후배들에게는 부단한 자기계발을 통해 균형감각(well-balanced)을 갖춘 품성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정진해 달라라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발전기금 쾌척의 의의를 밝혔다.

한편, 양인모 전 총동문회장은 우리학교 독일어 59학번으로 △삼성물산 부사장(해외사업 본부장 겸임) △삼성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사장 및 부회장 △한국플랜트엔지니어링협회 회장 등을 역임하였고 현재 △주한크로아티아공화국 명예총영사 △한맥중공업(주) 상임고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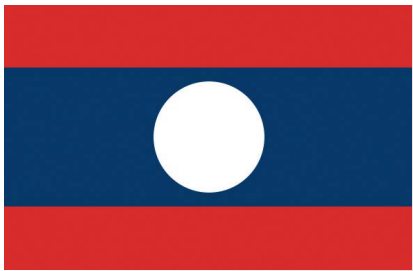


▲양인모(왼쪽) 재단이사과 박철 총장이 발전기금기탁을 기념하고 있다.

한독상공회의소 부회장으로 재임 중이다. 아울러 제24대, 25대 외대 총동문회장을 지냈으며 2008년부터 현재까지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이사로 재직하면서 모교 발전에 힘쓰고 있다.

이날 약정식에는 △김성재 서울배움터 부총장 △정경원 대외부총장 △신형욱 기획조정처장 △김학대 행정지원처장 △박홍수 입학처장 △정대인 정보지원처장 △장태영 대외협력처장 △최승필 홍보실장 △전학선 학생복지처장 및 관련 팀장들이 참석했다.

안지혜 기자 84ladypress@hufs.ac.kr



싸마이디! 글로벌 봉사단 in LAOS



우리학교가 주최하고 (사)아시아교류협회에서 주관한 2011 동계 글로벌 봉사단에 선발된 학생들이 인도와 라오스에서 봉사활동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다. 지난 해 11월 23일(수) 봉사단 발대식을 시작으로 각 배움터 학생 20명이 방중동안 약 열흘간 각각 인도와 라오스로 파견돼 △교육봉사 △노력봉사 △문화탐방 등의 일정을 완수했다. 서울배움터의 경우 지난 해 12월 24일(토)부터 1월 6일(금)까지 13박 14일 동안 인도 나그푸르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벌였고 글로벌캠퍼스 파견 학생들은 지난달 21일(토)부터 30일(월)까지 9박 10일간 라오스 비엔티안 지역으로 파견돼 활동을 수행했다. 김원석(통번역·이탈리아 06) 라오스 봉사단 학생대표자는 "현지에서 활동을 진행하는데 어려운 점도 많았고 조금 더 잘하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많이 남지만 모든 단원들이 도와주고 잘 따라와 주었기 때문에 큰 사고 없이 일정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본지에서는 라오스 비엔티안에 파견된 글로벌봉사단과 직접 동행해 9박 10일 동안 이어진 글로벌봉사단의 발자취를 취재했다.

4일간 우리는 선생님 - 교육봉사

20명의 봉사단원들은 지난달 21일(토) 한국을 떠나 감감한 저녁에 라오스에 도착했다. 다음 날 봉사단원들은 부푼 기대감을 안고 앞으로 있을 4일 간의 교육봉사를 도와줄 현지인 통역봉사자들을 만났다. △언어팀 △음악·체육팀 △과학팀 △미술팀으로 나뉜 4개의 교육팀은 각각 통역봉사자에게 진행할 교육에 대해 설명하고 도움을 구했다. 그리고 23일(월) 현지 풍파나오 초등학교에 방문해 본격적인 교육봉사가 시작됐다.

교육봉사 첫날엔 준비해왔던 몇몇 교안이 현지 아이들에게 적용되지 않아 난관에 부딪히기도 했다. 그러나 교육팀은 매일 밤잠을 줄여가며 교안 수정 회의에 열을 올렸다. 봉사단원의 노력으로 4일간 △탱탱볼만들기 △울동노래부르기 △카드만들기 등의 다채로운 교육이 진행됐다. 현지 모든 학년의 아이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모든 수업에 참여해 준 덕분에 교육이 무사히 마쳐졌다. 과학팀장을 맡았던 오연수(자연·환경 10) 양은 한국에서 가져온 준비물이 공황에서 허기가 나지 않아 현지에서 구한 교육재료 라임의 딱딱한 껍질을 밤새 가던 기억을 되새기며 "아직도 밤늦은 시간까지 진행된 교육회의 때문에 졸린 팀원들이 떠오른다"고 "수업에 따라와 줄 아이들 생각으로 견뎠다"고 소감을 전했다.

러브 스쿨 만들기 - 노력봉사

4일간 교육 시간표에 맞춰 매 시간마다 각 교육팀원에서 차출된 약 5명의 봉사단원이 초등학교 외벽에 새 색을 입히는 작업을 진행했다. 굵게와 사포로 벽의 페인트를 밀고 그 위에 새로 칠을 하는 단순노동이었지만 예상보다 힘든 작업이었다. 날리는 페인트 가루 때문에 호흡이 힘들었고 페인트가 잘 벗겨지지 않아서 일이 쉽게 진척되지 않았

다. 또한 애초 한쪽 외벽으로 한정됐던 페인트칠 범위가 전체 외벽과 기둥으로 확장되고, 창문과 교실 두 곳이 추가돼 수업 후 전 팀원이 투입돼 페인트칠을 해야 했다. 모든 팀원의 노력과 통역봉사자들의 도움으로 4일 만에 모든 페인트 작업이 완성됐고 마감해진 학교의 모습에 아이들도 기뻐했다. 페인트칠을 주관했던 안중현(공과·컴공 08) 군은 "모두가 처음 해보는 작업이었고 인원에 비해 건물이 커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 함께 힘을 합쳐 하루하루 페인트칠이 완성돼가는 학교를 보며 뿌듯했다"고 말했다.

너를 사랑해, 코이하크차호-문화공연

교육봉사와 노력봉사가 끝나고 27일(금) 오전에는 체육대회가 진행됐다. 준비된 종목은 다 하지 못했지만 달리기와 축구 등을 함께하며 아이들과 소중한 시간을 공유했다. 같은 날 저녁엔 그동안 수업이 연습했던 문화공연을 현지 관계자들과 통역봉사자들, 그리고 아이들에게 선보였다. 사물놀이를 시작으로 △태권무 △부채춤 △탈춤이 이어졌다. 공연 마지막 순으로 봉사단원은 현지어 코이하크차호(사랑해)를 적용해 스윗소로우의 '사랑해'를 다함께 합창했다. 몇몇 단원들은 아이들에게 노래를 전하며 헤어짐에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봉사팀은 아이들과 그동안 함께 했던 시간을 되새기며 작별 인사를 나눴다.

첫 만남은 어색했지만 이제는 가족 같은 모든 팀원들, 우리를 진심으로 도와주었던 5명의 통역봉사자들, 맑은 통하지 않지만 마음으로 소통했던 현지 아이들. 9박10일 길지 않았던 시간동안 잊지 못할 라오스의 인연과 함께 라오스 봉사단원들은 행복을 나누며 협력과 배려를 배우고 돌아왔다.

신혜지 기자 82hedy@hufs.ac.kr



흡스피킹 (Hufs+speaking)



▲ 도서관에서

A : 안녕하세요? 어떤 책을 찾고 계세요?
B : 안녕하세요. 한국사에 관한 책을 찾고 있어요.
A : 한국사 관련 도서는 저쪽에 있고, 한국사와 함께 동양사를 읽으시면 도움이 될거예요.
B : 감사합니다. 대출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 대어일부터 이주일입니다.
B : 네. 고맙습니다.

포르투갈어



A : Com licença, que tipo de livro você está procurando?
(공 리쎄샤, 끼 찌뿌 지 리브루 보쎄 이스따 브로꾸랑두?)
B : Oi, eu estou procurando um livro sobre a história da Coreia.
(오이, 예우 이스또우 브로꾸랑두 응 리브루 쏘브리 아 이스토리아 다 꼬레이아.)
A : Naquela parte estão os livros sobre a história da Coreia e será melhor que você leia a história Oriental junto com a história da Coreia.
(나겔라 빠르티 이스따우 우쓰 리브루스 쏘브리 아 이스토리아 다 꼬레이아 이 쎄라 멜로르 끼 보쎄 레이아 아 이스토리아 오리엔탈두 응 두 콩 아 이스토리아 다 꼬레이아.)
B : Obrigado. Até quando eu devo devolver?
(오브리가두. 아떼 광두 예우 데부 데블베르?)
A : Duas semanas após o data do empréstmo.
(두아스 쎄마나스 아보스 우 다따 두 임쁘레스찌무.)
B : Muito obrigado.
(무이뚜 오브리가두.)

인도어



A : नमस्ते.आप कौन-सी किताब खोज रहे हैं?
(नामस्ते, अप् कौ सी किताब कोज रहे हें?)
B : नमस्ते मैं कोरियाई इतिहास के बारे में किताबें खोज रहा हूँ.
(नामस्ते मे कोरियाई इतिहास के बारे में किताबें खोज रहा हूँ.)
A : कोरियाई इतिहास के बारे में किताबें वहाँ पर हैं और उनके साथ - साथ एशिया के इतिहास की किताबें पढ़ना भी बहुत सहायक हो जाएगा.
(कोरियाई इतिहास के बारे में किताबें वहाँ पर हैं और उनके साथ - साथ एशिया के इतिहास की किताबें पढ़ना भी बहुत सहायक हो जाएगा.)
B : धन्यवाद मैं कितने दिनों के लिए किताबें ले सकता हूँ.
(दान्यावाद मैं कितने दिनों के लिए किताबें ले सकता हूँ.)
A : आज ये दो सप्ताह के लिए हैं.
(आज ये दो सप्ताह के लिए हैं.)
B : अच्छा, धन्यवाद.
(अच्छा, दान्यावाद.)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거죠”

더 나은 학교를 위해, 매니페스토 운동 (Manifesto)

지난해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진행됐던 서울배움터 총학생회 선거가 29.62%의 낮은 투표율로 인해 무산됐다. 저조한 투표의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꼽힐 수 있겠지만 그 중 공약에 관한 의견도 제기됐다. 좀 더 탄탄한 공약, 실천 가능한 공약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바르고 알찬 공약을 제시하자는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 바로 매니페스토 운동이다. 이를 학내선거에도 적용할 수는 없을까? ‘더 좋은 외대’를 우리 손으로 만드는 방법 중 하나인 매니페스토 운동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편집자주**

◆우리학교 양배움터 학생 대표들 “매니페스토 실천해야”

‘매니페스토’는 ‘선거와 관련해 유권자에 대한 계약으로써의 공약’을 의미한다. 즉 △목표 △이행 가능성 △예산 확보의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공약을 뜻한다. 따라서 매니페스토 운동은 후보의 공약이 실천 가능한지, 지속 가능한지를 찬찬히 따져보는 운동인 셈이다.

글로벌캠퍼스 총학생회장 및 양배움터 각 단과대학 학생회장 9명에게 매니페스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다수 학생회장들이 매니페스토를 적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신비(국제·국제10)국제학부 학생회장은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당선만을 위해 제시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학생들의 관심과 애정이 없는 공약과 학생회는 능력을 완전히 발휘하기 어려운 만큼 학생의 신뢰를 받은 학생회는 공약을 실천하며 보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현성(통번역·아랍어 07)글로벌캠퍼스 총학생회장은 “매니페스토의 전면적 적용은 힘들 수 있지만, 단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교비 통장 사본 공개 △정자역 스크랩스 신설 △총학생회 SNS 개설과 온라인 커뮤니티 개설 공약 등을 이행하기 위해 학생과의 지속적인 소통에 힘쓰는 중”이라며 실천 의지를 보였다.

◆매니페스토, 참여하는 태도가 첫걸음

아직도 많은 예비 후보자들은 매니페스토 공약을 만들고자 해도 막상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른다. 특히 학생들의 입장에서 매니페스토가 무엇인지 알아도 실천 운동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는다. 이러한 학생들을 위해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이하 실천본부)를 방문해 그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했다. 우리학교라는 몸에 꼭 맞는 매니페스토 옷은 무엇일까?

“공약은 머리가 아닌 온몸으로 탄생시키는 것”

이광재 실천본부 사무총장은 현 대학선거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탁상공론’을 꼽았다. 후보가 책상 앞에 앉아 머리만 써서 탄생시킨 공약은 진정한 의미에서 학생들을 끌어당길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공약은 온몸으로 탄생시켜야 한다”며 “△발로 뛰며 유권자인 학생들을 만나고 △귀를 열어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손으로 공약 실천 준비를 하면서 △가슴으로 학생들과 소통하는 것이 진짜 후보”라고 후보의 노력을 강조했다.

한편 학생에 의한, 학생을 위한 선거인만큼 유권자인 학생들의 참여 또한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광재 사무총장은 학생들이 선거철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로 ‘거짓말 탐지기’ 역할을 주문했다. 총학생회 장에게는 자신의 뜻만으로 공약을 이행할 수 있는 행정력이 없으며 그것을 갖고 있는 것은 총장이다. 따라서 학생들은 후보가 내세운 공약이 실천가능한 공약인지, 혹시 표를 얻기 위한 거짓말인 것은 아닌지 항상 머릿속에서 탐지기를 작동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후보자와 유권자의 또 다른 만남의 장으로

매니페스토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후보와 유권자의 상호작용이다. 이는 학내 선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렇다면 후보와 학생이 함께 어울려 공약을 실행해나가는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

이 사무총장은 우선 ‘매니페스토 양심선언’부터 시작하라고 조언했다. 학교 언론기관의 입회 하에

“중립적 언론기관 입회 하 공약 실천 서약식도 바람직”

이제 임기를 막 시작하는 학생대표들과 후보들을 초청해 공약 실천 서약식을 하는 것도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전했다. 양심선언이 이뤄지면 유권자들은 좀 더 선거에 관심을 갖게 되고 학생회에 대한 신뢰도 커진다. 후보들이 공약 추진에 좋은 자극을 받는 건 당연한 일이 된다. 물론 여기서 언론기관의 중립

적인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 그는 만약 서약식이 실제로 진행된다면 자신을 비롯한 실천본부 위원들이 증인으로서 참석할 수도 있다며 매니페스토 양심선언에 모든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그 다음 순서로는 학생 공약 검증 위원회와 이행 검증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사무총장의 설명이다. 각 단과 별로 한 명씩 뽑아 선거관리 위원회와는 별도로 운영해 학생회를 향한 건전한 비판의 장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사무총장은 “목소리를 높여 공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 할수록 그 학교는 건강해 진다”며 “조용한 학교를 원하는 학생도 있겠지만, 그래서 아무런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전해 학생들의 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러한 학생들의 움직임에 대한 학생회의 행동은 크게 △입기 전 공약 실천의 토대 만들기 △입기 중 공약 실천과정 공개하기 △입기 후 다음 총학생회를 위한 터전 만들기 세 단계 나눌 수 있다. 선거에서 당선된 직후에는 의정활동계획서를 학생들에게 공개하고, 입기 중에는 학생들로부터 중간평가를 받는 태도가 요구된다. 또한 자신의 임기만으로 끝내지 않고 지속가능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다. 사무총장은 “학생들에게서 비판받는다 것이 두려울 수도 있다”며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학교가 성장하는 밑거름이 된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유나 기자 84yoonah@hufs.ac.kr

아직도 확신이 없는 당신에게 보내는 편지

카이스트 21대 총학생회장 김준우 군과의 만남

“매니페스토는 내 임기의 모든 것”

매니페스토가 좋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학내에 적용하기엔 부담스럽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매니페스토의 ‘모범사례’를 살짝 들여다보는 것은 어떨까. 여기 전국 총학생회 최초로 매니페스토 공약을 도입한 카이스트 전 총학생회장이 있다. 매니페스토를 통해 당선만을 위한 거짓 공약을 배제해 학생들의 높은 신뢰를 얻을 수 있었다는 김준우 군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보자.

Q 매니페스토를 어떻게 공약에 적용할 수 있었나요?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걸쳐 매니페스토 공약을 만들었는지 궁금합니다.

A 우선은 △타대학의 선거자료집 분석 △예산연구 △유권자 설문조사 △인터뷰 등 장기간의 공약연구를 거쳐서 당시 학교의 문제점과 건의사항을 면밀하게 조사했어요. 그렇게 나온 다양한 기초 공약들을 수십 차례의 토론

을 통해 유권자들의 요구에 맞지 않거나 실행 불가능한 공약들을 반 정도 삭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이 공약을 쉽게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각 공약의 개요와 목표 △기대효과 △현황과 문제점 △소요예산과 조달방안을 묶어 공약집을 만들었어요.

Q 매니페스토가 선거의 당선에 어떤 영향을 끼쳤나요?

A 당시에 전대 총학생회 활동을 해 조직기반이 탄탄했던 상대후보와는 다르게 저는 신규 입후보였기 때문에 조직기반이 매우 약했고 구성원들도 선거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유권자인 학생들에 의해 공약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졌고 결국 20% 정도의 득표차이로 값진 역전을 거뒀습니다. 당시 유권자 중 한 사람이었던 유광수 학생(카이스트)은 SBS와의 인터뷰에서 “정책들을 보니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거창하지는 않지만 구체적으로 설명돼있는 점이 좋았다”며 “그게 믿음직스러워서 한 표를 행사했다”고 평가 해주셨어요.

Q 당선 후에도 공약 이행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약들을 얼마나 지키셨나요?

A 매니페스토의 가장 중요한 요점은 공약을 만드는 과정뿐만 아니라 당선 후에도 유권자와 상시소통하며 실천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학생들이 그다지 원하지 않은 공약의 경우에는 과감히 폐지하고 학생들이 보다 많이 원하는 공약에 집행부의 역량을 투입했습니다. 따라서 수치적인 공약 달성율은 100%가 아니지만,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공약들은 거의 달성했습니다.

또한 입기 말에 일반 학생으로 이뤄진 21대 총학생회 공약 평가단이 발족돼 학생회의 공약 실천평가보고서를 발간했어요. 보고서를 보니 평가가 매섭게 돼 마치 성적표를 받는 기분이더군요(웃음). 학생들이 엄밀하게 평가를 할 수 있고 이에 학생회가 항상 긴장할 수 있다는 것은 매니페스토를 실천해야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Q 가장 뜻 깊었던 공약 실천사례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제일 기억에 남는 성공적 공약 실천사례로 종합체육관(스포츠 콤플렉스) 건립 공약을 만든 과정을 소개해드릴게요. 종합체육관은 기존에 학교가 추진하고 있었던 골프연습장 건립 사업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기존에 있던 체육관을 리모델링하거나 신축체육관을 건립하는 것을 학교에 요구하는 공약이었어요. 연구 과정에서 학생들의 요구에 대해서 가장 먼저 알게 됐

고 그 후 학교 측에서도 긍정적인 의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공약을 세우게 됐습니다. 당선 후에도 학생복지 측면에서 학교본부 측에 지속적으로 이를 요구했고 결국에는 복합 체육시설 건립이 학교의 마스터플랜에 포함했습니다. 현재 많은 학생들이 스포츠 콤플렉스를 활용하고 있어요.

Q 다른 대학교에서도 총학생회 선거에 매니페스토를 도입 할 수 있을까요?

A 매니페스토 공약 실천은 모든 선거후보자들이 당연히 이행해야하는 기본적인 과정인만큼 예비 후보자님들이 마음만 먹으면 어렵지 않게 실천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진정성이니까요. 중요한 공약 몇 가지만이라도 매니페스토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만든다면 수없이 많고 모호한 공약들을 만드는 것보다는 더 파급력이 있을거라 확신합니다.



밤 한술, 추억 한 잔

학교 앞 유서 깊은 맛집 탐방기

한 달이 멀다하고 학교 앞에는 새로운 음식점들이 생기고 또 문을 닫는다. 대학가의 특성인지 상가의 교체주기가 빠른 탓이다.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오나 세월이 지나도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가게들은 우리에게 안도감과 정겨움을 준다. 1954년 개교 이래 반세기 역사를 지닌 우리학교 앞에도 오랜 세월 외대생과 함께해 온 맛집들이 있다. 그 옛날 교수님들이 드나들었고 까마득한 학번의 선배들이 허기를 달렸던 곳이자 인소문에 지금 우리들도 즐겨 찾는 곳들. 이미 졸업한 동문들에게는 추억 한 그릇이, 재학생들에게는 외식 고민의 종착역이 되기를 바라며 서울배움터 앞 유서깊은 맛집들을 소개해 본다.

편집자주

안지혜 기자 84ladypress@hufs.ac.kr

영화장 '학교 앞 중화요리집의 선조'



▲ 먼 옛날 1970년대 영화장 모습

정문 앞 던킨도너츠를 끼고 골목으로 들어가면 불혹을 넘긴 중화 요리집을 만날 수 있다. 1970년 개업이후 현재까지 3대에 걸쳐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는 이곳 영화장은 햇수로만 보면 거의 학교 앞 음식점의 선조 격이다. 화교가 만드는 정통 중화요리를 맛볼 수 있다는 것도 이집의 장점 중 하나다. 이현재(상경·무역 92) 씨는 “옛날에는 가게가 학교 정문 맞은편에 있었는데 손님들이 많아서 길가에 줄서서 기다렸다 먹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회고했다.

중국에서 건너 온 당시 화교에 대한 차별이 심해 음식점사 맡고는 딱히 할 게 없었다는 것이, 조금은 슬픈 영화장 40년 역사의 시작이었다. 유승용 사장(53)은 어려서부터 할아버지, 아버지가 요리하던 모습을 보고 자랐고 호텔 주방에서 일

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중식요리에 발을 들여 놓기 시작했다. 그는 프라자호텔, 힐튼호텔 등의 경력이 적힌 명함을 자못 자랑스럽게 내밀었다.

유 사장이 이야기 보따리를 풀었다. “옛날에 외대 학생이고 교직원이고 할 것 없이 도시락 싸들고 다니던 시절에는 건더기도 없는 짬뽕국물 하나 시켜놓고 도시락 까먹는 테이블도 많았어요. 다들 돈 없고 배고플 때니까. 학생증이며 시계며 말기고 외상하는 학생도 허다했지.” 데모가 잦았던 군부정권 시절에는 위수령 때문에 굳게 닫힌 우리학교 교문을 배달통 하나 들고 자유롭게 출입 했다고 한다. “내가 학생 때 같이 학생 신분이었었던 청년들이 이제는 외대에서 교편을 잡고 있어요. 그 분들이 찾아올 때마다 세월이 많이 흘렀음을 느낍니다”고 덧붙였다.

학생들 사이에서 이곳 인기메뉴는 단연 시원하고 담백한 굴짬뽕이다. 유 사장이 처음 굴짬뽕을 메뉴로 내놨을 때만 해도 짬뽕국물이 왜 하얗냐며 손님들의 불만이 많았는데 지금은 일대의 중화요리집들이 모두 하얀 굴짬뽕을 내놓는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물으니 정통코스 중화요리집으로 확장시켜 외대 앞에서의 역

사를 계속 이어나가고 싶다고 답한다. 주방에서 불(火)과 사투를 벌이는 중화요리의 특성 탓일까 순식간에 많은 말을 쏟아낸 유 사장은 저녁손님 맛을 준비를 위해 불과의 전쟁터로 사라졌다.

사장님 추천메뉴: 굴짬뽕, 백짬뽕
가게위치: 정문 앞 던킨도너츠 끼고 돌아 골목 오른쪽.



▲ 영화장의 간판메뉴 '굴짬뽕'



▲ 주방에선 카리스마 넘치는 유승용 영화장 사장

'순대국밥 한 뚝배기 하실라?' 버드나무집



▲ 신복순 버드나무집 사장이 가게 입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문제일교회 맞은편 골목으로 들어가면 진한 순댓국 내음이 발길을 멈추게 한다. 세련미, 현대미와는 거리가 먼 듯한 가게외관인데도 식당 안으로 들어가는 손님들의 발걸음은 끊이지 않는다. 기자가 찾아갔을 때는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 오후 세시 경이었는데도 신복순(56) 사장은 방금 들어온 손님의 순댓국을 맡고 있었다.

“경희대, 광운대 앞에서 장사하다가 2001년엔가 외대 앞으로 가게를 옮겼어. 일반인들만 상대하는 장사였어 봐, 이렇게 오래 못해. 순진하고 착한 우리 학생들 보면서 일년 일년 하다보니까 벌써 십년이네. 하하”

상을 물린 신사장이 젖은 손을 앞치마에 쓱쓱 문지르며 드디어 마주 앉았다. “장사 오래하다 보니까 알고지내는 학생도 많고 이런저런 추억도 많지. 실연 당했다고 와서 술 먹고 우는 놈 달래서 돌려보낸 적이 한 두 번이게. 글썽 취업, 진로, 연애사 등등으로 인생 상담 받던 애들이 이전 벌써 다 커서 훌륭한 사회인으로 살고 있는데 어버이날, 크리스마스 이런 때는 인사한답시고 또 개들이 일부러 찾아와.”

우리학교 97학번, 00학번에서부터 10학번까지 신사장이 이야기하고 또 기억하는 학생들의 나이 대는 다양했다. 단골이었던 학생들이 졸업하고 취업하면서 남기고 간 명함이며 증명사진 뒤에는 이렇게 적혀있었다. ‘이모님 저 잊지 마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증명사진의 주인공 중 한 명인 김태국(상경·경계 97) 군과 전화연결이 됐다. “학교 다닐 때 자취를 했는데 어느 식당에서건 상업적인 밥을 먹었기에 먹어도 먹어도 배가 고팠어요. 이모님의 순댓국 한 그릇은 항상 배 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부르게 해주는 일용할 양식이었죠.”

학생들이 한바탕 비우고 간 빈 순대국밥 그릇을 바라보면서 신 사장이 느끼는 것은 뿌듯함 뿐만 아니라 후시 밥이 적지는 않았을까 하는 우려라고 한다.

푸짐하게 올려진 순대와 머릿고기 뿐

만 아니라 외롭고 배고픈 학생들 마음까지 채워주는 버드나무집의 국밥 한 그릇. ‘10’이라 적힌 화과 집퍼를 입은 여학생들이 재잘대며 또 식당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사장님 추천 메뉴: 순대국밥, 술국
가게 위치: 엘포레 골목 끼고 돌아 이문제일교회 앞.



▲ 막 나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순대국밥

다산초당 '학교 앞에서 만나는 인사동'



▲ 카메라를 들이대니 쑥스러운 미소를 지어 보이는 김장렬 다산초당 사장이다.

외대앞 역에서 정문으로 가는 길목 중간에는 97년부터 자리를 지키고 있는 전통찻집이 하나 있다. 정문 앞 대형 커피숍들 사이에서 조금은 외로이 차를 팔고 있는 가게다. 가게이름이 왜 다산초당이냐는 물음에 김장렬(42) 사장이 수줍게 답했다. “2005년도에 지인한테 가게를 넘겨받았는데 그 분이 다산 정약용 선생

이 유배 생활을 했던 다산초당 근처에 사셨답니다. 평소 차를 좋아하셨던 정약용 선생에게 힌트를 얻어 '다산초당'이라고 이름 지으셨대요.”

이슬차가 나왔고 김 사장이 손수 다기(茶器)를 덤겨주었다. 가게 한 칸으로 눈을 돌리니 청춘의 사랑과 우정이 담긴 수년간의 방명록들이 보였다. 자작시와 노래 구절부터 정성 들여 그린 그림까지 수십 권의 공책들이 이곳에 들렀다간 학생들의 추억을 말하고 있었다. “05년도까지만 해도 학생들이 많이 찾아왔죠. 네댓명 씩 와서 책 펼쳐놓고 토론도 하고 차분히 휴식하다가 가곤 했으니까. 자꾸만 더 ‘빨리빨리’를 지향하는 시대로 변해감에 따라 학생들이 차 한 잔 하면서 사색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김 사장이 말을 이었다.

학교 다니던 시절 이곳을 자주 드나들었다던 임승희(동양·터키 97) 씨는 “다

산초당은 차 마시러 갔다가 술 마시고 나오는 곳이었는데, 아직까지도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 고향에 온 것 같은 안도감과 고마움을 준다”며 추억에 잠겼다.



▲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방명록들

예전만큼 꾸준히 가게를 찾는 단골 학생들은 별로 없지만 선배들 손에 이끌려 처음 발을 들이게 되는 학생들, 오랜만에 학교를 방문했다가 다산초당의 인연이

궁금해 찾아오는 졸업생들과 교수들 때문에 가게는 계속 되고 있다고 한다. 학생들에게 우리 전통 차들을 오래도록 소개하고 싶고, 무엇보다도 외대 앞 마지막 전통찻집이라는 김 사장의 자부심이 오늘까지의 '다산초당'을 있게 한 동력이라고. 오늘은 별다방의 카라멜 마끼아또

대신 달콤한 이슬차 한 잔 어떨까.

단골 손님 추천 메뉴: 이슬차, 자스민차, 동동주&파전
가게 위치: 정문에서 외대앞역 가는 길 이디야 커피 옆.



▲ 달콤한 이슬차와 무한정 제공되는 빵튀기



▲ (왼쪽부터) 황정화 교무지기와 이가영(23) 배울 이



▲ 풀뿌리학교의 수업 모습



▲ 대부분의 수업이 이뤄지는 카페 채화당의 전경

배움의 의미 되새기기, 풀뿌리 사회지기학교

2010년 3월 10일(수) 고려대 경영학과 김예슬 양이 대학을 거부하는 대자보를 학교 게시판에 붙였다. 김예슬 양은 “진리는 학점에 팔아넘겼다. 자유는 두려움에 팔아넘겼다. 정의는 이익에 팔아넘겼다”며 퇴색된 고등교육의 현실을 꼬집었다. 우리가 한 번쯤은 고민해 봤을 법한 문제들이었다. 김예슬 효과일까. 제 1, 제 2의 김예슬이 나타났고, 지난해 청소년 단체 ‘투명가방꾼’이 입시거부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지식의 상아탑이라 불리던 대학의 의미가 희미해진 지 벌써 오래. 힘겹게 입학한 대학에서 우리가 배우고자 했던 것은 무엇인가. 새 학기가 시작되는 지금 배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여기 조금은 특별한 대학이 있다. 대안 대학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기존 대학과의 차별화를 꾀하는 이곳은 배움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편집자주**

◆ 여기는 풀뿌리사회지기학교

풀뿌리사회지기학교(이하 풀뿌리학교)가 운영되고 있는 채화당을 찾아가는 길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신촌역에서 이화여대를 옆으로 끼고 얼마나 언덕을 올랐을까. 골목에 들어서자 동그란 나무 팻말이 눈에 띄었다. 채화당이라는 글씨 아래 ‘풀뿌리사회지기학교’라는 조금은 낯선 명칭이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풀뿌리학교는 정식적인 대학등록은 돼있지 않지만 대안대학의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풀뿌리학교에선 졸업장과 같은 학위를 주지 않는다. 특히 선생님을 가르칠 이로, 학생을 배울 이로 부르며 교육에 상하관계보다 수평관계를 지향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곳엔 어디에나 있는 성적표도 없다. 다만 학생 개인의 특성과 능력을 고려한 가르칠 이의 평가서가 대신한다.

교육과정도 특별하다. △터득기 △길 찾기 △사회지기 과정으로 구성된 모든 과정을 이수하는데 2년 내지 3년이 걸린다. 앞의 두 과정에서 △글쓰기 수업 △사서전 읽기 △생각나누기를 통한 자기 성찰로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찾는

다. 배울 이들은 그 답을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를 결정한다. 그 다음 사회지기 과정은 크게 △문화 △정치·사회 △경제·경영으로 과목과 일의 성격에 따라 전공 분야가 구분된다. 풀뿌리학교는 학생들의 전공을 고려해 관련분야의 멘토를 소개해준다. 구체적인 멘토링 내용이 적힌 멘토 요청서를 멘토가 받아주면 배울 이들은 멘토를 따라 현장을 경험해보고 이 모든 과정을 거쳐 독립을 준비한다.

이런 풀뿌리학교의 교육을 받는 배울 이들은 어떤 학생들일까? 풀뿌리학교의 배울 이들은 부모님이 대안교육에 관심이 많은 경우와 배울 이 스스로 의지가 강한 경우인 두 가지로 나뉜다. 부모님의 반대가 심해 입학이 힘들었다는 이가영(23) 배울 이는 “처음엔 아버지의 반대가 심했지만 풀뿌리학교를 다니고 싶다는 제 의지를 포기할 수 없었다”며 “아버지께서도 결국엔 풀뿌리학교의 교육방법을 보시고 허락해주셨다”고 입학여정을 설명했다. 이곳에서 입학을 담당하는 황정화 교무지기는 “종종 다니고 있는 기존 대학이 싫어서 문의하는 학생들도 있다”며 “이런 학생들에게는 한 번 더 생각

하고 결정하라고 일러준다”고 말했다. 그녀는 풀뿌리학교는 기존 대학을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곳이 아니라 “풀뿌리학교는 스스로의 길을 찾고 싶은 학생들을 위한 곳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자신을 배울 수 있는 곳

이번 해 풀뿌리학교는 개교 이래 처음으로 졸업생을 배출한다. 졸업제도가 생긴지 2년만의 성과인 셈이다. 김원영(28) 배울 이는 풀뿌리학교의 제1회 졸업생이 될 예정이다. 전통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김원영 배울 이는 우리나라 전통문화의 기반인 농업분야로 진로를 정했다. 그는 앞으로 전통문화와 농업의 관계에 대한 논문을 쓸 예정이다.

그도 처음부터 대안교육을 알았던 건 아니다. 부산에 위치한 공대를 3학년 1학기까지 다닌 그는 집안 사정으로 학자금 대출도 받고 일도 하면서 학비를 벌었다고 했다. “차라리 그 돈으로 여행을 다니면 더 유익했겠다”는 회의감마저 들었다”며 “주변 친구들의 커닝으로 낮은 성적을 받으며 학점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솔직한 심정을 말했다. 그는 기

슬직에 취직할까도 생각했지만 배움에 대한 욕구가 있어 많은 갈등을 했다고 당시 상황을 회고했다. “그러던 차에 우연히 김예슬 양의 관련 기사를 읽고 대안학교에 관심을 갖던 중 풀뿌리학교를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풀뿌리학교의 교육방식이 이상적인 형태는 아니었다며 솔직한 생각을 말했다. 하지만 그는 “수업 당 배울 이들이 10명을 넘지 않아 가르칠 이와 배울 이 사이의 문턱이 높지 않았다는 점과 학교에서 토론티크 수업을 권장하다보니 가르칠 이들과 배울 이들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쌍방향 수업이 기존의 교육방식보다 더 좋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배우는 자신을 볼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 기계 아닌 인간이 되기를

프랑스 교육학자 장자크 루소는 ‘교육의 목적은 기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만드는 데 있다’고 말했다. 졸업 후 취업 경쟁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각종 자격증과 토익공부 같은 스펙에 중점을 둔다. 이런 상황은 대학에 공부하러 오기 보단 학위를 받으러 온다는 표현이 더 들어 맞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심지어 대학도 학생들의 입학성적과 취업률을 경쟁력으로 삼으려 한다.

김선우(경영·경제 11)군은 “대학에서 여러분야의 수업을 들을 수 있어 좋았지만 요즘은 학점마저 스펙으로 관리해야 하는지라 학문에 집중하지 못하는 느낌이 든다”며 회의감을 나

타냈다. 박다래(통번역·마인어 10)양은 “개인을 실력보다 학교로 평가하는 현실이 답답하다”며 “비싼 등록금을 내고서라도 학교에 다니는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진짜로 하고 싶은 일을 찾아야 하는 지금의 청년들에게 사회는 우리에게 스스로를 생각할 ‘짬’도 주지 않는다. 황정화 교무지기는 “배움의 의미와 목적은 결코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있는 것은 아닌데 지금 많은 학생들은 이런 틀에 갇혀 괴로워한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항상 승리한다는 말이다. 우리는 적에 대해선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나에 대해선 잘 모르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당신은 무엇을, 왜 배우고 있는가.

우보연 기자 84omg@hufs.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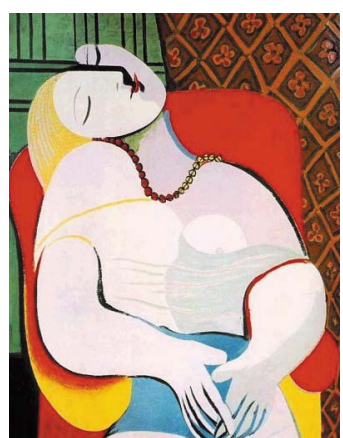
김원영(28) 배울 이

그림 읽어주는 기자 **기사 고정 칼럼** 서상아 기자

이은수 기자의 들찬길* ① 백자 콘서트 *들찬길 : 들판으로 박차고 나아가는 길

지금, 당신의 뮤즈에게

한 여인이 폭신해 보이는 소파에 앉아있다. 오른쪽 어깨에 살포시 기대 얼굴에는 은은한 미소가 맺혀있고, 팔꿈치에 부드럽게 걸친 팔을 따라 양 손은 가지런하지만 편안하게 무릎위에 놓였다. 녹색, 청색, 그리고 소파에서 입술로 이어지는 붉은색의 강렬한 색감과 따스한 인물의 부드러운 리듬은 묘하게 어울린다. 보는 사람도 달콤한 낮잠에 빠지고 싶게 만드는 이 그림의 작가는 입체주의의 거장 파블로 피카소다.



〈꿈〉 파블로 피카소 작

1927년 겨울, 그는 파리의 한 거리에서 마리 테레즈 발테르에게 첫 눈에 반한다. “아가씨, 당신은 아주 재미있는 얼굴을 가졌군요. 난 당신의 초상화를 그리고 싶습니다. 나는 피카소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천재 화가로 유명세를 탄 피카소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는 자존심 상해하기는커녕 6개월간 끈질기게 구애했고, 당시 17세였던 마리와 45세의 피카소는 연인사이로 발전한다.

화가의 네 번째 연인이 된 마리는 훌륭한 모델이자 무한한 영감을 주는 뮤즈로 변신했다. 그녀와 사랑을 나누던 때 피카소는 전 생애와 예술에 걸쳐 가장 로

맨틱하고 꿈에 젖은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데, 〈꿈〉은 이 시기의 대표작이다. 얼굴 형태를 통통한 하트처럼 그린 것은 연인을 향한 피카소의 감출 수 없는 사랑을 드러낸 것이 아닐까? 작가의 애정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그녀의 모습은 사랑이란 이름의 꿈속에서 더 없이 평온하고 아름다워 보인다.

사실 마리가 유일한 뮤즈였던 것은 아니다. 여성편력으로 유명한 피카소는 그녀와 교제당시 첫 부인과의 이혼에 합의하지 못한 상태였다. 요즘으로 따지자면 불륜 드라마의 단골소재쯤 되겠다. 하지만 수많은 여인과 염문을 뿌린 피카소를 쉽사리 바람둥이라고 매도할 수 없는 까닭은 감상자도 작품을 보며 그가 그랬던 것처럼 사랑에 빠지기 때문일 것이다. 마리는 후에 피카소의 마지막 부인인 자클린의 반대에 못 이겨 그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하고 ‘뒤를 따르겠다’는 유서를 남긴 채 자살한다. 피카소 또한 그녀 삶의 뮤즈였던 것이다. 인생은 절대평가라고 했던가. 세상 사람들이 어떤 평가를 내리던 피카소와 마리는 서로의 뮤즈로 작품 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이다.

아직도 청춘인 그대에게 위로

사람들이 음악을 좋아하는 이유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노래 가사나 의미에 공감을 느끼는 것이 큰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처음 ‘백자 콘서트’에 초대받고는 이런 공감을 느끼기 어려울 것이라 짐작했다. 백자가 부르는 민중가요는 주로 사회운동에서 불리는 노래를 총칭한다. 지금도 대학가에서 많이 불리는 편이지만 민중가요를 듣고 우리 대학생은 너무 늦게 태어났다. 아버지 세대의 운동권 선배들이 독재정권에 투쟁하는 장면을 떠올렸다. 공연 장소도 막걸리나 소주가 어울리는 허름한 곳 일거라고 생각하며 동국대학교 인근의 웰컴씨어터로 향했다.



시사회에 초대합니다 2012.2.24일 8시 25일 6시 장소:미로스페이스

그러나 오래되고 칙칙한 것은 민중가요가 아닌 기자의 편견이었다. 가수 백자의 목소리는 아담하고 세련된 공연장을 가득 채웠다. “나를 보여야 할까 나를 감춰야 할까... 나를 보인다는 건 용기를 낸다는 것, 상처받더라도 견뎌내는 것...”(백자의 ‘바보’ 중) 노래를 가만히 듣다보니 대학교에 막 입학하여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뎠던 때가 떠올랐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 △어른이라고 불리

는 것 △스펙 5종 세트라는 말이 더 이상 우스갯소리로 들리지 않는 것 모두 우리 대학생들이 처한 현실이다. 20여 년 전 노래를 작곡했던 20대의 백자의 고민은 물론 우리와 같지는 않았을 것이다. 기타를 뚱뚱거리며 해소하려고 했던 고민은 분명 취업을 위한 스펙 쌓기와 다른 무언 가였을 것이다.

그래도 청춘이기 때문에 느껴야 했던 감성은 시대를 아우른다. 우리학교 선배이기도 한 그는 학교 안을 비추던 가로등을 보며 곡을 썼다. “하얀 눈송이를 비추어 그대 깊은 상처를 덮어 주리라”(백자의 ‘가로등을 보다’)고 말하는 백자에게 공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도 그 가로등을 어깨가 축 처진 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2시간 내내 민중가요가 사회만이 아니라 젊은 우리도 담고 있어 노래자체의 매력을 충분히 즐길 수 있었다. 백자 콘서트는 막을 내렸지만 백자는 다큐영화 <걸음의 이유>로 관객들과 계속 만나고 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한다면 백자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방문해보길 바란다.

프레젠테이션이 기본인 시대

정갑연 강사
글로벌경영대학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비즈니스는 무한경쟁으로 치달으면서 우리가 기본으로 갖춰야 할 것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프레젠테이션(Presentation)'이다. "삶은 프레젠테이션이다"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요즘 많은 사람들이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다. 프레젠테이션(Presentation)이란 말은 선물(Present)과 의사소통(Communication)이라는 단어가 합해진 말이다. 즉, 프레젠테이션이란 의사소통을 통하여 선물을 주는 것이다. 현대사회를 사는 우리들은 이렇게 내 말을 듣는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는 행위인 프레젠테이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은 프레젠테이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프레젠테이션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여러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지는 않을까 걱정하기 때문이다. 또한 프레젠테이션을 잘하는 능력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능이라는 잘못된 생각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오해다. 훌륭한 발표자는 노력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며 누구나 프레젠테이션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임함으로써 뛰어난 발표자가 될 수 있다.

프레젠테이션을 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준비 또 준비다. 프레젠테이션 준비 단계는 크게 '기획-작성-연습'의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기획단계에서는 프레젠테이션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청중은 누구인지, 그들의 성향은 어떠한지 등을 파악한다. 또한 이번에 프레젠테이션 하게 된 배경을 이해하고, 프레젠테이션이 진행되는 장소나 시간 등도 사전에 조사를 해두어야 한다. 그리고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무엇을 말할 것인지, 즉 메시지를 선정하고, 선정된 메시지를 표현하는 문장을 구성해야 한다.

두 번째 작성 단계에서는 메시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스토리를 짜야 한다. 메시지의 타당성을 뒷받침할 논리적인 근거들을 배치하고 스토리는 단락을 구분해 소제목을 붙인 후에 발표내용을 작성해야 한다. 스토리라인의 기본구조는 도입(에서 무엇에 대해 왜 말할 것인지 부터 시작해, 전개(에서 무엇과 어떻게 말할 것인지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설득을 하고, 마무리(에서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을 정리하고 감동과 여운을 남기며 끝내는 것이다. 스토리라인을 완성했다면, 반드시 검증과정을 거쳐야 한다. 사람은 일반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구성하기 때문이다.

검증을 끝낸 후 프레젠테이션 스토리를 보여주고 들려줄 시청각 자료를 제작해야 한다. 시청각 자료를 위한 툴(Tool)은 파워포인트로 할 것인지 플래시로 할 것인지, 텍스트와 이미지

만으로 단순하게 할 것인지, 사운드와 동영상을 덧붙여 화려하게 갈 것인지 등을 결정해야 한다. 기획단계가 '무엇을 말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단계라면 작성단계는 '어떻게 말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단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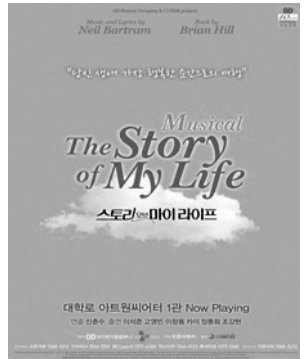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연습단계는 완성된 시청각자료를 갖고 실전처럼 연습하면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수정도 해가며 주위 사람들로 부터 의견을 듣고 보완해 완성도를 높이는 단계이다.

이렇게 준비하고 연습해도 막상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되면 긴장한다. 하지만 자신의 긴장을 즐기면서 적극적인 자세와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프레젠테이션에 임하자. 그래야 프레젠테이션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 어린 시절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를 생각해 보자. 넘어지는 것이 무섭다고 해서 어린 시절에 포기하면 어른이 돼서는 참 타기 힘든 것이 자전거다. 프레젠테이션 또한 마찬가지다. 능동적이고 열정적인 당신은 훌륭한 발표자가 될 수 있다.

극과극 기자 고정칼럼

문나윤 기자

너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



▲ 뮤지컬 '스토리 오브 마이 라이프(Story of my life)'

새 학기가 시작됐다. 당신은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잔뜩 부푼 기대감 때문에 들떠있진 않는가. 한편으로는 타지에서 낯선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이 들 수도 있다. 어쨌든 '새로운 시작'에 집중하다 보면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낸 소중한 사람들을 잊기 일쑤다. 점차 멀어져 친구의 이야기를 듣기도, 또 친구에게 내 이야기를 하기도 힘든 순간이 다가올까 두렵다. 누구나 자신의 어린 시절부터 함께한 죽마고우가 있을 것이다. 항상 곁에 있었기에 지금 당장 옆에 없어도 잘 살고 있으리라 믿는 그 누군가가 있다면 여기 공감할 만한 뮤지컬이 있다.

뮤지컬 <스토리 오브 마이 라이프>는 두 친구 톰과 엘빈의 이야기다. 12살 때 장레식에 몰려 들어간 이들은 '먼저 죽은 사람의 송덕문을 남는 사람이 써주자'는 약속을 한다. 하지만 죽마고우인 두 친구는 대학입학을 기점으로 멀어지고 만나는 횟수도 점차 줄어든다.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톰은 어린 시절의 기억을 잊지는 않지만 바쁜 현실에 밀려 추억을 되새길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그러던 어느 날, 톰은 엘빈이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어린 시절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의 송덕문을 쓰게 된다. 송덕문을 쓰는 과정 속에 톰은 엘빈과 함께한 날들을 추억하게 되고 이를 통해 자신을 되돌아본다. 그는 이미 세상을 떠난 엘빈을 기억하며 "내 시선은 늘 미래에 있었어. 소중한 모든 것을 놓친 것도 모른 채"라는 말을 남긴다. '오늘을 살면서 내일만을 꿈꾸지 않았나' 되돌아보게 만드는 대목이다.

연락을 안 해도 잘 있을 것만 같은 친구가 갑작스럽게 먼저 세상을 떠나 더 이상 내 옆에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송덕문을 쓰는데 어려움을 겪는 톰에게 죽은 엘빈은 "너와 나. 사람과 인생을 다 둘러봐. 내 삶의 이야기는 다 네 것이야"라고 말한다. 친구를 잃는다는 것이 단순히 그를 잃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한 시간 속의 나를 잃는다는 것이다. 나와 같이 숨 막히는 일상 속에 허덕임 친구에게 안부 인사를 건네 보자. 잊고 있던 나에게 건네는 위로가 될 것이다. 너의 이야기가 곧 나의 이야기이기도.

세상을

책 in out 기자가 선정한 책을 통해 세상을 비춰보는 코너입니다

안지혜 기자

잘 익은 소리 한 자락은 어디서 오나

눈을 멀게 하면 눈으로 펼칠 영기가 귀와 목으로 옮겨가서 눈빛 대신 사람의 목청을 비사게 한다는 옛말이 있다. 여기 그 말을 믿고 딸의 눈에 청각수를 찍어 넣은 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있다.

이야기는 전라도 보성읍의 한 길목에 위치한 소릿재 주막에서부터 시작된다. 주막의 젊은 주모가 남도 소리를 하도 구슬프게 뽑아낸다고 해서 붙은 이름 '소릿재 주막'. 소식을 듣고 찾아간 남주인공은 주모에게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 원래 소리의 원전은 자기가 아니라 사연 많은 한 부녀였는데 그 부녀를 모시다가 어깨너머로 배우게 됐다는 것이다. 그 부녀의 사연인 즉슨 이랬다. 소리를 하며 남도일대를 부랑하던 한 남자가 아들이 있는 과부

와 정이 통했고 그 사이에서 낳은 계집아이와 과부의 아들은 남자에게 소리를 배우기 시작했다. 그러나 사내아이는 도망쳤고 그 후 하나 남은 딸마저 자신을 떠날까 두려워하였던지, 정말 소리에 한(恨)을 담아주려고 했던 것인지 남자는 딸의 눈에다 청각수를 흘려 넣었다. 눈 먼 딸아이는 아버지가 죽는 날까지 온 몸으로 소리를 하다가 아버지 삼년상을 마치는 날 훌쩍 떠났다고 한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심하게 요동하는 남주인공을 바라보며 주모는 도망갔던 과부의 아들이 본인 앞에 앉아 있음을 느낀다.

아버가 정말 딸에게 한을 심어주고자 눈을 멀게 한 것일지 묻는 주모의 말에 남주인공은 대답한다. "사람의 한이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누구한테

받아 지닐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살이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긴긴 세월 동안 먼지처럼 쌓여서 생기는 것이라네. 어떤 사람한테는 외려 사는 것이 바로 한을 쌓는 일이고 한을 쌓는 것이 바로 사는 것이 되듯이 말이네." 눈 먼 딸의 소리가 듣는 이들의 심금을 울렸던 것은 그녀가 아버지를 용서하고 한(恨)을 넘어선 소리를 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굳이 우리 민족에 한정 짓지 않더라도 세상 사람들 모두는 각자의 한(恨)을 안고 살아간다. 정치적 폭력과 같은 구체적 억압에서부터 가난, 학벌 등의 문명으로 일반화 될 수 있는 이 같은 억압기제를 현실이라고 말한다면 이에 대응하는 인간의 지혜가 이 작품에서는 소리, 즉 예술로 나타나고 있다. 어떤 이는 종교로 어떤 이는 사



-이정준 작

랑으로 억압이 가득한 현실에서 자신의 한을 풀어내고 있다. 그 매체가 무엇이었던 간에 원한 아닌 한(恨)을 담은 것이, 아니 한을 넘어서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잘 익은 소리를 만드는 과정이 아닐까. 지금 당신의 삶에서는 어떤 소리가 나는지 묻고 싶다.

경·제·속·속

김차환 신한은행 차장(89학번)

네모난 지구 12 <고정기고>

김병호(국제지역대학원)

재테크도 습관이다

오랜 기간 고객과 상담을 하다 보면 지금 당장 쓸 돈도 없거나 앞으로 쓸 돈이 많아서 적금 같은 것은 아예 꿈도 못 꾸다고 말하는 고객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에 대해 자주 놀란다.

하지만 우리는 돈에 대한 부자의 태도를 명심해야 한다. 소위 말하는 부자들은 최소한 자신의 앞날에 대한 준비는 철저히 한다. 다시 말하면 월 소득 중에서 일정 비율을 먼저 적금으로 미리 떼고 나서 나머지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강조를 해도 "목돈마련은 자금이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것" 이라 생각하는 고객들이 너무나도 많다. 바로 이러한 사고의 차이가 부자와 빈자를 가름하는 가장 근본적인 차이이다. 처음부터 부자였던 사람은 별로 없다. 그들은 단지 생활습관 중에서 소비습관이 달랐기 때문이다.

경제학에는 "저축의 역설"이라는 개념이 있다. 이는 개인입장에서는 돈을 소비에 쓰지 않고 저축하는 것이 미덕이지만, 경제 전체의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악덕이 된다는 개념인 것이다. 선진국과 같이 경제가 성숙단계에 접어들어 사회구성원들이 저축만 하고 소비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소비부족으로 경제가 침체된다는 저축의 역설이 분명히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대학생의 신분이거나 사회 초년생의 경우에는 저축의 역설까지도 생각할 겨를이 없다. 게다가

부채까지 보유하고 있다면, 부채를 먼저 정리하고 나서 목돈을 마련하겠다는 나름의 구상을 단정히 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예전의 자산 현황과 현재를 비교해보면 대부분 현재보다 더 악화되어 있거나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소비습관을 고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도한 부채 또는 생활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적금을 가입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한 달에 10만원의 생활비를 줄여서 적금을 가입해보자. 적금을 가입하거나 가입하지 않거나 생활의 질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1년 후에는 120만원이라는 현금 자산이 생긴다. 여기서 당연한 질문이 생긴다. "대출이 자가 예금이자보다 훨씬 더 비싼데 왜 굳이 적금을 가입해야 하는가?" 라고 하지만 "당신은 매월 10만원으로 대출을 상환하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생활비에 사용하고 계십니까?"라고 되묻고 싶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10만원을 소비에 사용하지, 부채를 상환하거나 저축하는 데는 사용하지 못한다.

바로 이러한 부분이 바로 "저축의 역설, 부채의 역설"이라고 말하고 싶다. 실제로 자산을 증식시키는 재테크 방법에는 신문, 잡지, 서적 등을 통하여 쉽게 구할 수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은 재테크도 습관이고, 시작이 반이라는 것을 명심하는 것이다.

흑룡(黑龍)의 해, 흑금(黑金)의 위협

국제 유가가 다시 심상치 않다. 이번 달 22일, 미국과 유럽 유가의 기준이 되는 WTI와 북해산 브렌트유 선물 유가는 각각 106.28달러, 122.90달러를 기록하며, 모두 9개월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두바이 현물유가 역시 전일대비 배럴당 1.73달러 상승한 119.42달러에 거래가 마감됐다. 국제 유가 상승의 여파로 서울 지역의 휘발유 값은 2070.01원으로 상승해, 작년 10월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던 2067.26원을 넘어섰다. 모건스탠리 측은 국제유가가 10% 상승할 경우 한국 소비자 물가가 0.56% 오를 것으로 전망해, 또 다시 한국 경제에 적신호가 켜졌다.

현재 원유 재고나 주요 산유국의 생산능력에는 큰 문제가 없다. 일례로 사우디아라비아는 하루 1,200만 배럴의 원유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알리 알-나미미 사우디 석유 장관은 미 CNN 방송에서 "이란의 원유 수출이 줄어들 경우 하루 200만 배럴 증산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현재 국제 유가가 비단 수요량과 공급량으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다.

그렇다면 현재 국제 유가 상승을 견인하는 주요인은 무엇일까? 이란 핵문제다. 이번 달 23일,

이란이 핵사찰을 거부하고 핵시설을 보호하는 군사훈련을 감행했다. 이에 줄곧 마찰을 빚어온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며 국제 유가가 치솟기 시작했다. 또 이란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증산 계획에 반발하며 증산을 재고해 줄 것을 요구했고, 이란이 핵실험에 성공하면 사우디아라비아도 몇 주안에 핵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제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 수준까지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 중동 지역의 안보 위협이 가중될수록 안정적인 원유 수급에 대한 국제 사회의 우려는 점차 심화돼 국가 유가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 경제는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추세지만 국제 유가 상승과 유로존 위기라는 악재가 한국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터키와 중동 3개국을 순방하면서, 우리나라는 중동에서 필요한 원유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게 됐고 건설 사업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힐 수 있게 됐다.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된 셈이다. 2012년 흑룡의 해, 한국이라는 흑룡이 승천하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해본다.

로그아웃 기자 고정 칼럼 문요섭 기자

‘우리’ 다시 만들기



최근에 해를 품은 달,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은 소설들이 드라마로 제작되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또한 책들이나 영화들도 다른 여러 가지 버전이 존재한다. 이렇게 요즘 콘텐츠들은 단일 콘텐츠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콘텐츠의 다양함은 OSMU 정신을 바탕으로 한다. OSMU는 “One Source Multi Use”의 약자이다. 한 가지 원천 자원을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OSMU 정신은 이제 문화콘텐츠뿐만 아니라 사업에게도 적용이 된다. 요즘을 사회에서 다양성을 추구하는 정신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된다. “한 우물만 파라”라는 옛 말은 이제 “한 우물이라도 더 파라”라는 말로 바뀌고 있는 게 요즘의 현실이다.

이제 우리들은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 자신을 바꾸고 발전시켜야 한다. 자신이 처해있는 환경에 알맞게 자기 자신을 바꾸면 살아남을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살아남기가 힘들다. 다시 말해서 기존의 자신에서 새로운 자신으로 탈바꿈하는 과정을 계속적으로 실행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자기 자신을 새롭게 바꾸고 발전시키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다. 자신 △고유의 특성 △처한 환경 △상황 판단 능력 등 복합적인 요소 모두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 과정을 잘 수행한다면 훌륭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

2012년 필자는 외대학보의 독자에서 기자로 발전, 변신 중이다. 물론 독자에서 기자가 되는 과정이 그리 쉬운 것만은 아니다. 또한 새내기도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으로, 재학생은 더 나은 대학생으로 모두 더 좋게 발전하고 변신하길 바란다. 새 학기, 이제는 ‘우리’를 우리답게 새롭게 만들어 볼 때다.

일시 정지 정든내기



새내기배움터로 떠나기 전 노천극장 모습. 후배에게 나눠줄 단체티를 몸을 던져 받고 있는 선배가 눈에 띈다. 새학기엔 뭐니 뭐니 해도 새내기가 주인공일 테지만, 새내기를 맞이하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정든내기도 있다. 정든내기 화이팅!
글·사진 이은수 기자

흡페서(HUFS+professor)의 소리



지금부터 약 2천 2백여 년 전의 일입니다. 중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국 중의 하나로 전 중국을 △지리 △정치 △경제 △문화 심지어 사상적으로까지 하나로 통일하려 했던 무시무시한 철권 통치자 진시황시대, 농촌에서 일용잡급직에 노역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진승(陳勝)입니다.

진승은 오늘날도 가난한 지역으

사랑하는 신입생들에게

로 손꼽히는 하남성의 등봉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집이 가난하여 머슴을 살 정도였지만, 어려서부터 큰 뜻을 품었습니다. 어느 날 진승은 밭일을 하다가 함께 일하던 친구에게 말합니다. “이 보게, 후일 우리 사이에 누군가 부귀를 누리려면 서로 잊지 마세(勿富貴, 毋相忘).” 그러자 친구들은 품앗이나 받는 주제에 헛된 꿈을 꾸냐고 비웃습니다. 그러나 이는 진승이 후세에까지 널리 전하는 유명한 말을 남기는 계기가 됩니다. “어찌 참새가 기러기의 큰 뜻을 알겠는가!(燕雀安知鴻鵠之志哉!)” 이 ‘홍곡지지(鴻鵠之志)’는 중국어와 한국어에서 이미 성어가 되어 ‘영웅호걸의 큰 뜻’이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이 일화만을 보아도 진승은 자신이 훗날 무엇이든 성취하리라는 강한 확신을 가

졌던 인물입니다. 이후 진승은 “왕후장상이 어찌 그 씨가 따로 있겠는가(王侯將相寧有種乎!)”라는 기치를 들고, 오광(吳廣)이라는 사람과 함께 농민들을 규합하여 진나라의 학정에 항거하는 반란을 일으켰는데, 한 때는 타오르는 들불처럼 왕성한 적도 있었습니다. 비록 그의 봉기는 1년도 채 못 버텼지만, 그는 황제가 되기도 했고, 철권통치의 진나라가 해체되는 서막을 열기도 했습니다. 그의 역사적인 외침은 우리나라 고령 무신정권시대 농민과 노비 출신인 망이(亡伊)와 망소이(亡所伊)에게도 전달되어 항거의 이념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장황하게 역사적 인물을 이야기하는 것은 ‘농민 봉기’를 말하려함이 아닙니다.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여 우리학교의 일

원이 된 우리 신입생 여러분에게 꼭 하고 싶은 한 마디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꿈을 꾸어라!’입니다. 여러분은 중고등학교 시절 입시에 얽매어 꿈을 이야기할 시간이 적었습니다. 그러나 진승보다는 좋은 조건에서 열심히 공부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부터는 필연적으로 각자가 모두 크고 다양한 꿈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 외국어대학교도 크고 다양한 꿈을 가진 대학이 되며,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그러한 나라가 됩니다. 세상은 넓지만 그 세상은 바로 여러분의 크고 다양한 꿈을 실현하는 여러분의 무대입니다. 2012년 한국외국어대학교에 입학한 신입생 모두가 꿈을 꾸며 “세계를 호호하는 젊은 가슴”으로 캠퍼스생활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나를 있게 하신 스승

동문의 소리



내가 학과선택과 미래진로를 놓고 고심 하던 어느 날이었다. 담임 선생님께서 나를 부르시어 영어학이 내 적성에 맞고, 다가올 한국의 산업사회에서는 실용영어로 무장된 인재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조언해주셨고 결국 나는 한국외국어대학 영어과에 지원하여 합격했다. 입학통지를 받고 나는 외대에 가서 담임선생님께서 잘 아시던 박술을 학장님께 인사 드렸다. 영문법 학자이신 학장님을 뵈던 그

때를 나는 잊을 수 없다. 교복에 모자를 쓴 고등학생을 만나주신 것도 황광한데 나에게는 일일이 경어를 쓰시며 선생님으로부터 내 학업성취도와 영어공부에 대한 열정을 끝까지 귀담아 들으시는 학장님의 성실하신 태도에 나는 탄복했다. 학장님과의 첫 만남에 때려뭉쳐야 할 나에 대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공부에 매진하여 졸업 때 전공과목 수석상을 받기도 했다. 스승님은 땅 좁고, 입구 많고, 자원도 없는 한국이 전쟁의 폐허에서 살아나 6.25 이후 전개될 산업사회에서 세계로 도약할 수 있는 언어 문화적으로 다변화된 국제적 인재들을 배출하려면 학생들이 외국인 교수들과 상호작용하는 기회를 많이 갖게 함이 최상책이라고 생각하셨다. 그래서 백두진 국무총리와 의논하시어 외국인 교수들의 봉급을 국가가 지원하는 결정

을 받아내셨고 학생들은 G.Rainer 교수, R. Rutt신부님 같은 명망 있는 분들로부터 실용영어를 마음껏 배울 수 있었다. 또 스승님은 77년 퇴임 때까지 건학 이념의 창시자로서 외대의 특수성을 살리며 기초를 굳건히 다지셨다. 대학살림을 하시면서도 꼭 시간을 내어 학생들에게 영문법과 실용영어를 가르치셨다. 이러한 가르침을 받은 인재들은 국내외에서 국위를 선양해 왔다. 상역국장이나 상공장관을 지낸 노진식, 박필수 동문 등은 탄탄한 영어실력으로 수출 드라이브의 중추 역할을 했다. 나도 국제 커뮤니케이션학회 임원 및 회장을 역임하면서 지난 40여 년 간 세계 곳곳에서 열린 학술대회 논문발표와 기조연설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이는 선생님으로부터 배운 영어구사력과 주옥 같은 명구들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으리라.

나는 스승님의 일거일동에서 형식의 완성을 통한 정신의 구현을 목도해왔다. 소박한 생활을 하시면서도 생각은 세속에 찌들지 않은 고고함을 평생 유지하셨다. 혹자는 물욕과 탐 권위주의가 신성의 영역을 허물어버려 참다운 스승이 못 나오는 사회가 되었다고 탄식한다. 하지만 고매하신 스승님의 인격과 학문, 헌신적 제자 사랑은 세월이 흐를수록 제자들의 마음속에 스승님을 흠모하는 불길을 치솟게 한다. 얼마 전부터 60, 70이 넘는 제자들이, 특히 FILA KOREA의 윤윤수 회장이 앞장서 거금을 모아 지난해 10월 17일 선생님의 추모집을 펴냈고 모교교정에 선생님의 동상을 세운 것도 그 때문이다. 다정다감하시던 박술을 선생님 동상을 학교에서 볼 수 있게 됐으니, 모교를 찾는 많은 동문들의 애교심도 증폭될 것이다.

지난호를 말한다 | 김소연 | 중국·중국 11

지난호를 말한다 | 박해창 | 성경·국통 11

학생들의 소리의 귀 기울이는 학보를 바라며

945호에서는 지난해의 뜨거운 감자였던 대학 등록금이 특집기사와 사실에서 공통적으로 다뤄졌다. 등록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잘 알지 못했었는데 특집기사에서 제시한 통계자료를 통해서 우리 학교 등록금의 현 주소를 자세히 알 수 있었다. 등록금의 현황을 다루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등록금의 책정 기준과 사용 내역까지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어 그동안 등록금을 내면서 가졌던 궁금한 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기사였다. 또한 우리대학 뿐 아니라 한국대학의 등록금 현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특히 사실에서 OECD국가와 한국정부의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을 비교해 놓아 등록금에 대해 다른 방향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보도 중에서는 글로벌캠퍼스의 실용영어제도 개편과 졸업인증시험을 대체하는 프로그램 소개한 기사가 눈에 띄었다. 이 제도는 다음 학기부터 시작되기에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기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많은 내용을 한 기사에 실으려다보니 다소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처음 생기는 제도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좀 더 세부적인 설명과 예가 포함된 친절한 기사였으면 더 좋을 것 같았다. 가장 흥미로웠던 기사는 4면의 학교 난방시설에 관한 기사였다. 우리 학교 학생이라면 한 번쯤은 라디에이터의 소음과 건물마다 다른 난방 온도에 대해 궁금해한 적이 있을 것이다. 이 기사에서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었다. 또 이에 대한 학생들의 고충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였다. 하지만 이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학생들의 의식변화를 촉구하며 실질적인 해결 방안은 제시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한편 심층기획으로 다뤄진 민중가요 관련 기사는 현재 대중가요를 선호하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민중의 삶의 애환을 담고 있는 민중가요의 의미를 짚어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우리의 삶과 목소리를 대변하는 민중가요에 관한 정보들을 학보 기사를 통해 접할 수 있어서 매우 반가웠다. 2012년 새 학기가 성큼 다가왔다. 올해에도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와 학생들의 소리를 가감 없이 전해주는 학보를 기대한다.

아쉽다고만 하기엔 아쉬웠던 학보

지난 945호 3면에는 ‘하늘에서 바라본 우리학교’라는 문구와 함께 학교 사진들이 지면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배움터의 건물들이 최근 공사를 끝낸 점을 보여주고 싶었다면 사진을 많이 넣은 기사를 하나 따로 작성하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러워 보인다. 6면의 심층기획은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다. 민중가요라는 주제 자체는 학생운동을 하는 대학생들이 즐겨하며 일반 학생들과의 거리가 멀어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학생운동을 했던 선배들이 우리나라가 민주화되는 데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다. 기사 밑에 우리학교 출신인 민중가요 가수와의 인터뷰도 정말 좋았지만, 민중가요의 역사에 대해서도 다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학교에서 많이 불리던 민중가요는 무엇이 있었는지 등 우리학교와 민중가요의 역사를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7면의 심층기획은 다소 실망스러웠다. 우선 눈에 들어오는 그래프와 표들을 만든 기준이 상당히 애매했다.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 △등록금

중 연구학생경비 비율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등 세 가지 기준으로 만든 그래프는 비교대상이 전부 다 달라 정확한 비교가 힘들었다. 등록금이 비슷한 학교 등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비교대상을 선정해서 그래프를 만들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또한 졸업을 위해 취득해야 할 학점 수가 많다는 것은 강의실과 교수 수가 부족해 수요만큼 충분히 열리지 않는 강의가 많다는 현실을 생각해 보면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학보의 아쉬운 점들을 많이 적었다. 그러나 학보를 보고 좋다고 느낀 점도 많았다. 우선 학교에 관한 다양한 기사는 학보를 통하지 않으면 알기 힘든 것들이 많았다. 특히 라디에이터 소음에 관한 문제는 정말 학보가 아니었으면 학생들이 이 유도 모른 채로 계속 불편한만 견뎌야 했을 것이다. 또한 ‘출산의 소리’는 우리학교 학우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여론을 모으는 데 매우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학보가 학생들의 불편한 점을 잘 듣고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들이 애독하는 신문으로 나아갔으면 한다.

외대학보에서는 지난호를 말한다 코너 기고를 받습니다. hufspress@hanmail.net

알에서 깨기 위해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애쓴다. 알은 새의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리지 않으면 안 된다” 헤르만 헤세의 작품, ‘데미안’에 나오는 문구다. 새로운 출발선에 섰던 지난해의 나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말이 아니었나 하고 생각해 본다.

지난해 익숙해진 학교를 떠나 친구들과 헤어져야 한다는 슬픔과 낯선 곳에서 새로운 것을 시작해야 한다는 두려움에 잔뜩 움추러 있었다. 설렘보다 두려움이 앞서자 입학 전에 열린 각종 행사들에 불참하게 됐다. 그러다 보니 개강 첫날 만난 사람들은 더 낯설게 느껴졌다.

처음으로 껌질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걸음을 내디딘 곳은 동아리였다. 그곳 역시 모르는 사람들뿐이었지만 용기를 냈다. 처음이 힘들었을 뿐 오히려 상대방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었다. 동아리 선배들로부터 조언도 듣고 새로운 친구도 사귀며 많은 힘을 얻었다. 또 날 응원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자 한없이 두꺼워 보이던 알껍데기를 뚫고 나갈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

더 일찍 마음의 벽을 허물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고 또 새롭게 경험했을 거라 생각하니 그 동안의 시간이 무척 아까웠다. 사실 아직도 먼저 다가가는 것이 겁이 난다. 하지만 우물쭈물하던 지난해보다 더 뜨겁고 열정적인 마음으로 살 예정이다.

‘스스로 알을 깨면 병아리지만 남이 깨면 프라이’라는 말이 있다. 조금 힘들고 두렵겠지만 그 마음의 벽을 허물고 정말 좋아하는 것을 찾아 나서자. 노력한다면 더 풍요로운 대학생활을 누리지 않을까? 지금부터라면 4년 후엔 분명 누구보다 더 강하게 알을 깨고 나가 자유롭게 세상을 나는 새가 될 것이다.

연재인(동유럽 · 세크어 11)

당신의 사랑이 진심이라면

주변에서 애완동물 키우는 집을 찾아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개의 경우 말도 잘 알아듣고 주인을 잘 따르기 때문에, 사람만큼 한 가족처럼 함께 살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애완동물로 사랑받고 있다. 애견샵 방문으로 보이는 강아지들을 구경하다가 결국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 각종 애견용품과 함께 강아지 한 마리를 사서 집으로 돌아오는 사람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개를 집으로 데려온 후는 어떨까? 동물을 진심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은 어린 강아지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정성들여 돌봐줄 것이다. 어린 강아지는 교육도 시켜야 하고 필요한 예방접종도 많이 돌보기가 까다롭다. 정성들여 키워야만 10여 년의 삶을 사는 개가 일생을 함께할 주인과 잘 어울려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강아지의 삶이 불행해지는 경우도 많다. 예뻐할 줄만 알고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개를 불행하게 만든다. 이런 사람들은 강아지를 예뻐하다가도 강아지가 아무 곳이나 불일을 보거나, 예방접종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 때, 애완동물을 감당할 힘든 집이라고 느낀다. 그들은 결국 개를 아는 사람에게 넘기거나 돈을 받고 판다. 이때 애완견은 다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스트레스는 물론 주인에게 버려졌다는 상처도 느낀다고 한다.

지금도 수백 마리의 개가 길에 버려지고 있다. 이런 유기견들은 보호센터로 옮겨져 열흘 간 보호되다가 주인이나 분양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안락사 된다. 우리 사람에게 이렇게 한 생명에게 상처를 주고 삶을 한순간에 끝내버릴 권리가 있을까? 모든 사람들이 애견샵을 나서면서 예쁜 강아지와 애견용품만이 아닌 책임감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유은지(사회 · 자전 11)

사설

대학의 존재 이유와 대학신문의 역할

대학에서는 많은 일이 일어난다. 특정 사안을 중심으로 △교수 △학생 △직원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심지어 학생 간에도 소속 학과, 캠퍼스의 차이 등을 이유로 심각한 분열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때 대학신문이 특정 구성원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상황이 조성되면, 소외감을 느낀 분들은 대학신문의 편파성을 비판하게 된다. 대학신문의 역할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대답은 대학의 존재 이유에서 찾아야 한다. 이 문제 또한 상당한 논쟁이 예상되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이 부인할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이며 중대한 대학의 존재 이유는 다름 아닌 ‘연구’와 ‘교육’일 것이다. 연구와 교육이라는 명분이 없다면, 대학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

연구와 교육은 대학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갈등을 풀어주는 열쇠이기도 하다. 서로 다른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에 대해 특정 구성원의 이익과 손해를 말하기보다 어떤 사안이 대학의 본분인 연구와 교육에 더 중대한 파급효과를 갖는지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학의 존재 이유가 연구와 교육이기 때문에 대학신문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루어야 하는 내용 역시 연구 및 교육 관련 기사이다. 발전기금을 기탁한 분들의 기사가 중요한 이유로 발전기금이 연구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중대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세계 최고 명문 대학에서 발간되는 학생 신문에는 그 대학의 교수, 학생이 주도한 탁월한 연구 성과를 상세하게 소개하거나, 발전기금을 기탁한 분의 가족사까지 소개하는 기사가 비중 있게 실리고 있다.

대학의 존재 이유와 대학신문의 역할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2012년 외대학보는 연구와 교육에 대한 기사를 강화하고, 학내 구성원 간의 갈등에 있어서도 연구와 교육의 발전을 위해 더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함으로써 우리 대학 발전의 견인차가 되어야 할 것이다.

강의계획서, 자발적인 태도변화가 필요하다

지난해 3월 2일, 본지는 강의계획서가 ‘제 때’, ‘충실히’ 업로드 되지 못한다는 내용의 심층기획 기사를 보도했다. 수강신청 일주일 전임에도 각각 전공과 교양과목에서 약 26%와 19%의 강의계획서가 올라오지 않았고, 작성된 강의계획서조차도 그 내용이 부실한 경우가 많았다.(935호 6면 참조) 그 후 일 년, 본지는 강의계획서 기획기사의 연장선으로 다시 한 번 강의계획서를 점검해봤다.

당시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교수 임명 시기나 외국인 교수수를 위한 전산 시스템의 영문화의 경우 이번 해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학교 측의 노력으로 교수 임명이 빠르게 이뤄졌고 전산 시스템도 영문화가 돼 외국인 교수들도 강의계획서를 충분히 작성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에도 여전히 강의계획서는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았다. 지난해 보다 많은 강의계획서가 올라왔지만 여전히 전공과 교양에서 각각 733개와 141개의 강의계획서가 수강신청 하루 전날까지 업로드 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제도와 시스템보다 강의계획서를 올리는 교수들의 자발적인 태도 변화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강의계획서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제 때’, ‘충실히’ 올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강의계획서는 교수와 학생간의 첫 만남이다. 또한 모든 강의는 그 강의가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가르칠지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는 강의계획서가 비단 학생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각 학과에서도 교수들이 자발적으로 강의계획서를 업로드 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외국인 교수들 또한 이러한 점을 강조해 예외가 없도록 해야 한다.

프랑스 유명 작가 생텍쥐페리는 ‘계획 없는 목표는 한낱 꿈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다. 계획의 중요성은 반복해도 지나치지 않다. 다음 학기엔 강의계획서 100% 업로드를 기대해본다.

· 자적 : 외대인(교수, 학생, 직원) 모두 · 주제 : 제한 없음 · 매수 : 200자 원고지 3매 내외 · 투고방법 : 전자우편 hufspress@hanmail.net

비둘기 칠판

외대학보가 묻는다
방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안은?

■ 서울배움터
고향친구- 학기 중엔 서로 바빠서 얼굴도 못 봤는데, 방학 때 만나 옛날 추억도 나누고 좋은 시간을 보냈다.
임예빈(상경 · 국통 09)

군대후입들- 카투사에서 군복무를 했는데 거기서 만난 사람들의 똑부러진 모습을 보고 앞으로 뚜렷한 목표 설정을 해야겠다는 좋은 자극을 받았다.
김진관(상경 · 국통 09)

진중권- 자기편이라도 옳지 못한 일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다는 용기와 힘을 실어줬다.
공대현(동양어 · 이란어 12)

■ 글로벌캠퍼스
김수환 - 드라마 ‘해를 품은 달’을 시청하는 여자라면 이번 방학 가장 기억나는 사람으로 공감하지 않을까요?
조민희(어문 · 중앙아시아어 10)

다이나믹듀오- 다이나믹듀오가 오리엔테이션에 공연하러 왔을 때 사람들을 열광시켰던 에너지를 받고 싶다.
최태용(동유럽 · 헝가리어 11)

손승현 - 군대 간 동기다. 추운겨울 고된 훈련으로 고생하고 있을 승현이가 보고싶다.
윤준섭(어문 · 그불어 10)

외대학보

www.oedahagbo.com

창간 1955년 4월 11일
발행인 박철 편집인 겸 주간 전종섭 편집장 오유진
제작 경보기획 인쇄 중앙일보
학생기자실 (서울) 09)2173-2504 / 02)2173-2505(F)
(용인) 031)3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외대로 81
트위터 @hufspress1955

외대학보의 문은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외대학보는 언제나 독자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및 사회·문화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 학내 구성원이라면 주저 없이 외대학보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 독자 기고란
· 출판사의 소리(교원) · 출산의 소리(학생) · 동문의 소리(동문)
· 지난호를 말하다

◆ 기사 제보 및 기고 주실 곳
· 전자우편 hufspress@hanmail.net
· (서울) 09)2173-2504 (용인) 031)330-4112
· 학생기자실 (서울) 신학생회관 401호 (용인) 학생회관 212호
· 편집장 오유진(어문 · 그불어 10) 82yujin@hufs.ac.kr
· 보내주시는 기사제보는 신문의 편집 계획에 따라 실리지 못하게 될 수도 있음을 알립니다.

십자말풀이

“학보를 꼼꼼히 읽으면 답이 보인다”

			①	②			⑧		⑨
		③							
		④	⑤						
			⑥						
①									

I 가로열쇠

- ① 글로벌캠퍼스 글로벌봉사단이 다녀온 나라 (5면 참조)
- ③ 인물 중심의 인터넷 신문 (12면 참조)
- ④ 탄산나트륨의 속칭
- ⑥ ‘처음에 세운 뜻을 이루려고 끝까지 밀고 나갈’이란 뜻의 사자성어
- ⑦ 신촌에 위치한 풀뿌리사회복지 학교가 있는 카페 이름 (8면 참조)
- ⑧ 17대 국회 국회의원으로 박원순 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의 병역 비리를 주장했으나 허위로 밝혀져 의원직을 사퇴했다 (1면 참조)

I 세로열쇠

- ② 진흙이나 사기 또는 쇠붙이로 만든 관악기의 하나.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을 입으로 물고 불며 손가락으로 구멍을 막았다 열었다 하여 소리를 낸다.
- ③ 스페인 태생이며 프랑스에서 활동한 입체파 화가. 대표작으로 「게르니카」, 「아비뇰의 처녀들」 등의 작품이 유명하다 (8면 참조)
- ⑤ 우리학교 앞 전통 찻집 이름 (7면 참조)
- ⑧ 강의를 위해 교수가 작성하는 계획서 (4면 참조)
- ⑨ 거적을 깔고 엮어서 임금의 처분이나 명령을 기다리던 일

■ 서울배움터 국제학사 401호 담당자 : 안지혜 기자 (010-9244-0732)
■ 글로벌 캠퍼스 학생회관 212호 담당자 : 우보연 기자 (010-4877-0115)

■ 정답 십자말 풀이를 이름과 연락처와 함께 학보사로 가져오시면 추첨을 통해 3명에게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단, 하나라도 틀릴 경우 상품을 드리지 않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터뷰이가 될 수 있어요”

주변을 통해 세상을 말하는 피플코리아 대표 김명수



흔히 인터뷰라고 하면 유명 인사를 비롯해 사회적으로 명성 있는 사람들을 인터뷰이(interviewee)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런데 여기, 불치병인 아이를 지극정성 간호하는 엄마, 3년 연속 자동차 판매왕에 오른 사람을 비롯해 현실과 거리가 먼 얘기가 아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기자가 있다. 20년간 몸담은 메이저 신문사를 떠나 인물 전문 인터넷 신문인 피플코리아를 설립한 김명수 대표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자서전이 대학생들 사이에 매진이 되고 있는 요즘, 멀리 있는 유명인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주변의 숨은 사람들의 삶을 통해 그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들려보자.

편집자주



▲ 피플코리아 메인화면 (www.peoplekorea.co.kr)

피플코리아
인물 중심의 인터넷 신문이다. 올바른 사의를 만들기 위해 목 목이 아리고 있는 아름답고 용기 있는 이웃들의 목소리를 대중에 알리게 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바람직한 가치를 깨닫게 하려 노력하고 있다.

외대학보(이하 외) 일간지를 비롯한 언론에서는 “피플코리아에 나오면 뜬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영향력이 크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피플코리아를 창립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김명수 기자(이하 김) 피플코리아는 2000년도에 제가 직접 글을 쓰면서 사이트를 관리하는 1인 미디어의 체제로 출발을 했어요. 처음 약 2년간은 신문사 기자로 활동하면서 피플코리아를 운영하다가 나중에는 일간지 신문사 기자를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인물 중심의 신문을 만들었습니다. 최근까지도 1인 미디어 체제를 고수해오다 작년에 규모가 커져 직원들을 고용하게 됐어요. 직원들을 고용한 후에도 꾸준히 인터뷰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할 예정입니다.



외 편집기자 10년을 포함하여 신문사에서 약 20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기자로 재직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신문사를 박차고 나와 인물 전문 인터넷 신문인 피플코리아의 기자로 활동하게 되신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김 신문사에서 기자로 활동할 당시에 IMF가 터져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힘들었었어요. 기업들 사이에서 구조조정 바람도 불고 나라 전체가 많이 불안했었죠. 제가 일하고 있던 신문사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제 미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됐어요. 고민 끝에 일간지에서 기자로 활동할 때부터 제가 사람과 이야기 나누는 것을 좋아하고 글 쓰는 것을 좋아하니까 인터뷰 전문 신문을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한 점이 계기가 돼서 피플코리아라는 1인 미디어를 만들게 된 거죠.

외 일간지 기자로 활동하신 20년의 경력이 피플코리아의 대표로 활동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김 생각해 보면 지난 20년간 신문사에서의 경험이 지금 피플코리아를 운영하는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됐어요. 특히 편집기자 시절 제목만 계속 지은 경험 덕분에 인터뷰 기사를 쓰고 나서 보다는 눈에 띄고 참신한 제목을 지을 수 있었어요. 사실 인터뷰도 독자들의 시선을 끌려면 제목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외 흔히 인터뷰라고 하면 인터뷰어가 질문을 하고 인터뷰이가 대답을 하는 Q&A 방식을 떠올리기가 쉽죠. 하지만 기자님의 인터뷰는 마치 인터뷰이를 주인공으로 하는 소설을 읽는 느낌이 들어요. 이러한 인터뷰 방식을 추구하시는 의도가 무엇인지요?

김 인터뷰가 인터뷰어의 질문과 인터뷰이의 대답만으로 구성된다면 내용의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인터뷰어의 입장에서 인터뷰이를 만났을 때의 첫 느낌 및 그 사람의 인상 등을 포함한 인터뷰이의 행동 하나하나가 인터뷰의 일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 인터뷰에 최대한 인터뷰이의 관한 모든 걸 솔러고 노력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인터뷰이에 관한 묘사가 많아져 독자들이 상대적으로 소설을 읽는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독자들이 제 인터뷰를 읽고 나서 인터뷰가 생생하게 느껴지거나 인터뷰이와 가까워진 느낌이 들었다면 제 의도는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외 다른 일간지에서는 사회적으로 명성이 높은 유명 인사들을 인터뷰하는 것과는 달리 김명수 기자는 우리 주변에서 인터뷰이를 찾는 것 같아요. 인터뷰이 선정에서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김 사실 주요 일간지들을 보면 이슈가 되는 특정 인물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물론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는 사람들의 인터뷰가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지금 사회가 돌아가는 상황도 파악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앞으로의 미래도 예측해 볼 수 있죠. 하지만 저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인터뷰를 쓰고 싶어요. 나와 같은 고민을 하고 비슷한 꿈을 갖고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인터뷰이를 통해 독자들 스스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싶어요. 아무래도 독자들이 거리감을 느끼는 인터뷰이보다는 가까운 이웃 같은 인터뷰이로부터 느껴지는 게 많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외 지금까지 약 1000여명의 사람들과 인터뷰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인터뷰이 한 사람만 소개해 볼까요?

김 인터뷰이 선정에 있어서 신중하게 고민하고 정하기 때문에 인터뷰이 모두 다 기억이 나요. 하지만 그 중에서 한 명을 꼽자면 정성길 씨예요. 정성길 씨는 잘나가는 의사이자 발명특허도 많이 가지고 있는 발명가예요. 하지만 그는 현재 모든 걸 버리고 오직 우리나라의 잃어버린 역사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도 정성길 씨는 유럽 미국 등을 오가며 우리나라 역사와 관련된 자료들을 찾고 있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은 일인데 오로지 나라의 역사를 찾겠다는 의지 하나만으로 편안하고 명예로운 삶을 포기한 거죠. 그 분을 인터뷰 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람이 있구나 하고 놀랄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진심으로 대단하다고 생각했죠.

외 취업, 학점, 등을 비롯해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대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혼자서 그 고민을 해결하기 어려울 때 대부분의 학생들을 보면 성공한 사람들의 인터뷰 혹은 자서전등을 보며 의지를 다잡곤 합니다. ‘평범함 속의 진리’를 추구하는 김명수 대표의 인터뷰들을 보며 대학생들이 어떤 방향으로 받아들였으면 하는지 궁금합니다.

김 물론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의 인터뷰들을 통해서 학생들 스스로가 얻는 것도 많죠. 하지만 대학생들이 자신의 롤 모델이 혹은 멘토가 꼭 멀리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위의 사람들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배울 점이 많은 건 사실이거든요. 제가 인터뷰한 사람들을 언뜻 보면 평범해 보이지만 사실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그들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원하는 것은 대학생들이 제가 한 인터뷰를 읽고 자신이 목표하고 있는 바와 비슷한 인터뷰이를 찾아 스스로 롤 모델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롤 모델을 찾은 후에 그들의 인터뷰를 읽고 학생들 스스로의 삶의 목표를 구체화 한다면 더 바랄 것도 없겠네요.

외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도 취업 등을 포함하여 미래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 외대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인터뷰이의 말이 있다면

김 IMF로 우리나라의 경제가 침체 됐을 때 목욕탕에서 일하고 계신 분을 인터뷰한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그 분께서도 의아해 하셨고 그래서 저의 인터뷰 요청을 계속 거절하셨어요. 길고 긴 설득 끝에 그분께 진솔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죠. 제가 그분을 통해 말하고 싶은 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시장에서 블루오션 개척이고 다른 하나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의 중요성이예요. 지금 대학생들도 취업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 시야를 넓게 가졌으면 해요. 그저 ‘남들이 다하니깐 멋있어 보이니까’가 아닌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 도전하면 언젠가는 그 분야에서 인정을 받을 날이 올 거라고 믿어요. 도전하지 않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으니까요.

글 홍규원 기자 84kwhong@hufs.ac.kr
사진 강유나 기자 84yoona@hufs.ac.kr